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2학기 · 보충 학습지 07

민족 문화 수호와 대중문화의 확산

책을 쓰고 우리말을 정리하는 일이 왜 민족 운동이 되었을까요?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 말과 글을 지킨 사람들, 과학과 문화를 널리 알린 사람들의 활동을 연결합니다.

앞 편에서 가져오는 말

말	뜻	연결
식민 지배	다른 나라가 주권을 빼앗고 정치·경제·사회 등을 지배함	01·03편
문화 통치	3·1 운동 뒤 일부 문화 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통제와 민족 분열을 꾀한 일제의 정책	03편
실력 양성 운동	교육·산업 등에서 힘을 길러 독립의 기반을 마련하려 한 운동	05편
민족 협동 전선	사상이 다른 세력이 항일이라는 공동 과제로 협력한 흐름	05편
사회주의	노동자·농민의 해방과 평등한 사회를 추구한 사상	05·06편
계급	생산에 필요한 재산을 가진 관계 등에 따라 나뉘는 사회 집단. 예: 지주와 소작농	06편
소년 운동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존중하고 권리를 넓히려 한 운동	06편

한 질문의 흐름 질문 → 한 줄 답 → 말뜻 먼저 → 한눈에 보기 → 설명 → 비유·사료 → 시험 포인트 → 바로 확인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수록된 공공누리 사진은 각 자료의 이용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번 편의 큰 틀과 세 묶음

우리 역사와 우리말을 연구해 민족 문화를 지키려 한 활동을 묶어 **국학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민족 문화를 지킨 여러 갈래

민족 문화 수호 운동

국학 운동

한국사 연구 · PART A
우리말 연구 · PART B 전반

과학 대중화

지식·기술 보급 · PART B 후반

종교·문학·예술·대중문화

사회 활동과 문화의 여러 모습 · PART C

세 갈래는 병렬 관계입니다. PART C는 문화 수호와 함께 대중문화의 확산·통제도 다룹니다.

국학 운동은 PART A와 PART B 전반을 함께 묶습니다. PART C에서는 문화 수호 활동과 함께 당시 대중문화의 확산·통제도 살펴봅니다.

묶음	질문	핵심 내용
PART A 역사를 해석하는 여러 눈	Q01~Q06	식민 사관·민족주의 사학·조선학·사회 경제 사학·실증주의 사학
PART B 말과 과학을 널리 알린 사람들	Q07~Q11	한글 연구·사전 편찬·과학 대중화
PART C 신앙과 문화 속의 여러 대응	Q12~Q18	종교·문학·영화·매체·체육·종합 비교

같은 시대의 여러 갈래

같은 시대의 여러 갈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같은 시기의 서로 다른 활동이 보입니다.

연도	역사 연구	우리말	과학·문화·종교·언론
1915	박은식 『한국통사』		
1919			『창조』 창간
1920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조선 체육회
1921		조선어 연구회	
1922			안창남 고국 방문 비행
1923			토월회
1924			발명학회
1925	조선사 편수회 조직		카프 · 조선 신궁
1926		가갸날	「아리랑」 · 「사의 찬미」
1927		동인지 『한글』	경성 방송국 방송 시작
1931		조선어 학회로 개칭	극예술 연구회
1932		기관지 『한글』	
1933	백남운 『조선사회경제사』	한글 맞춤법 통일안	『과학 조선』
1934	조선학 운동 본격화 진단 학회		과학의 날 행사 과학 지식 보급회
1935			카프 해산
1936		조선어 표준말 모음	베를린 올림픽 일장기 말소 사건
1937			『조선중앙일보』 폐간
1938			김용관 체포 숭실학교 폐교
1940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발표	조선 영화령 시행
1942		조선어 학회 사건	

1945 광복 — 아래는 광복 후의 후속

1947 『조선말 큰사전』 첫 권 → 1957 『큰사전』 완간

PART A

역사를 해석하는 여러 눈

Q01 일제는 왜 우리 역사까지 자기에게 유리하게 설명하려 했을까?

[일제 강점기 · 식민 사관]

한 줄 답 한국이 스스로 발전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믿게 하여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말뜻 먼저

▣ 누구·어디·무엇?

- **조선사 편수회**: 1925년 조선 총독부가 조직한 역사 편찬 기구.

▣ 역사 개념어

- **식민 사관**: 일제의 한국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의 과거를 해석한 역사관.
- **사료**: 과거를 연구하는 데 쓰는 기록·유물 등의 자료.

▣ 낱말 풀이

- **정당화**: 어떤 행동이 옳거나 필요한 일인 것처럼 설명함.

한눈에 보기

식민 사관의 세 논리와 반박

일제의 주장	놓친 사실	주로 반박한 흐름
타율성론: 한국사는 외세에 이끌렸다는 주장	한국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변화시킨 역사	민족주의 사학 — 박은식·신채호의 주체적 역사 연구
정체성론: 한국 사회는 스스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주장	한국 사회 내부의 변화와 발전	사회 경제 사학 — 백남운의 보편적 발전 단계
당파성론: 한국인은 본래 편을 갈라 다툰다는 주장	특정 정치 갈등을 민족 전체의 성질로 볼 수 없음	— (특정 연구 흐름 하나와 고정해 짝짓지 않음)

일제가 내세운 주장입니다. 확인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① 지배를 설명하는 말도 지배의 수단이었다

일제는 군대와 경찰만으로 조선을 다스린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은 스스로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부족하고 일본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퍼뜨리려 했습니다. 식민 사관은 이런 지배 논리를 역사 설명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② 외부의 영향과 타율성론은 다르다

어느 나라 역사에나 교류와 전쟁 같은 외부 영향이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한 나라의 역사가 줄곧 남에게 끌려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인 스스로 제도를 만들고 사회를 변화시킨 과정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③ 사료를 모았다고 해석까지 중립적인 것은 아니다

조선사 편수회는 자료를 수집하고 『조선사』를 편찬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고르는 기준과 역사를 설명하는 방향에는 식민 지배의 목적이 작용했습니다. 사료 수집이라는 활동과 그 자료로 내린 결론은 구별해야 합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평가표에서 지워 버린 변화

한 학생이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연습하며 나아졌는데, 평가자가 처음 모습만 적고 이후 기록을 지운다면 성장 과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응 지워진 성장 과정 = 정체성론이 외면한 사회 내부의 변화

여기까지만 맞다 한국사를 한 사람의 성장 단계와 똑같이 설명하는 비유는 아닙니다. 역사 자료를 선택적으로 쓰는 문제만 비교합니다.

시험 포인트

이렇게 나온다 타율성은 외세 의존, 정체성은 내부 발전 부정, 당파성은 다툼의 민족성 일반화로 구별한다.

이렇게 바꿔 낸다 식민 사관을 한국의 독자적 발전을 밝히려는 역사 연구로 바꾼다.

바로 확인

Q01-1 객관식

다음 설명이 비판하는 식민 사관의 논리는?

> “한국 사회에도 생산과 교역, 사회 관계의 변화가 있었다. 오랫동안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하면 이런 과정을 놓친다.”

※ 학습용으로 작성한 설명이다.

① 타율성론 ② 정체성론

③ 당파성론 ④ 민족주의 사학

답

Q01-2 O/X

외국의 영향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나라가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간 사실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답 (O) (X)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

Q01-3 빈칸

1925년 조선 총독부가 조직하여 역사 편찬을 추진한 기구는 ( )이다.

답 _____

Q02 박은식은 나라를 잃은 뒤에도 왜 역사를 써야 한다고 했을까?

[1910~1920년대 · 박은식]

한 줄 답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지켜야 나라를 되찾으려는 뜻도 이어 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림



박은식

1859~1925 · Q02

국혼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웹툰 그림(재현) · 실제 얼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말뜻 먼저

▣ 누구·어디·무엇?

- **박은식**: 국혼을 강조하며 근대사·독립운동사를 쓴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제2대 대통령을 지냄.

▣ 역사 개념어

- **민족주의 사학**: 민족의 주체성과 정신을 강조하여 역사를 연구하는 흐름.
- **국혼**: 나라의 정신. 박은식은 국어·국사·국교(나라의 종교) 등 정신적 요소를 혼으로 보았음.
- **국백**: 나라의 물질적 형체. 군대·재정·영토 등 나라를 실제로 이루고 지탱하는 기반.

▣ 낱말 풀이

- **저술**: 책이나 글을 씀.

■ 한눈에 보기

박은식과 신채호

민족주의 사학 안에서도 대표 저서와 연구의 중심을 구별합니다.

박은식 · 국혼

『한국통사』(1915)
일제 침략과 국권 상실의 아픔

『한국독립운동지혈사』(1920)
독립을 위해 싸운 경험과 정신

신채호 · 민족의 주체성

『조선사연구초』
낭가 사상 · 고유의 자주적 정신

『조선상고사』
아와 비아의 투쟁 · 고대사 연구

공통점 / 민족의 주체성과 정신 강조

실물 표지가 아닌 저서 제목 카드입니다. Q02·Q03에서 함께 봅니다.

① 형체인 백과 정신인 혼을 구별했다

박은식은 나라를 형체인 백과 정신인 혼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군대·재정·영토 같은 물질적 기반은 국백, 국어·국사·종교 같은 정신적 기반은 국혼에 해당합니다. 국백을 빼앗겨도 국혼이 남아 있으면 나라를 되찾을 바탕이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고 가르치는 일이 독립운동의 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② 패배의 과정과 저항의 과정을 함께 기록했다

『한국통사』는 나라를 잃은 과정을, 『한국독립운동지혈사』는 독립을 위해 싸운 역사를 다룹니다. 일제의 침략과 그에 맞선 한국인의 행동을 함께 기록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③ 책 이름의 통사를 구별한다

『한국통사』의 '통'은 아플 통(痛)으로, 나라를 잃은 아픔을 담은 이름입니다. 시대 전체를 두루 서술한다는 뜻의 통사(通史)와 한자가 다릅니다.

사료 읽기 — 박은식, 『한국통사』 서언

> **나라의 모습이 무너졌더라도 그 나라의 역사가 담은 정신까지 없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정신을 살려 둔다면 나라를 다시 세울 날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이 역사를 쓰는 까닭이다.**

※ 서언의 형(形)·신(神) 대목을 직접 현대어로 풀어 씀. 어휘·어순을 바꾼 풀이이며 원문 그대로의 인용은 아님. 본문의 혼·백 구별은 같은 책의 결론과 연결됨.

비유로 이해하기 몸과 마음

몸을 다쳐 움직이기 어려워도 다시 일어서겠다는 마음을 지키면 회복을 향한 노력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박은식은 나라의 형체와 정신을 구별하여 설명했습니다.

대응 몸 = 국백(군대·재정·영토), 마음 = 국혼(국어·국사·종교)

여기까지만 맞다 나라를 되찾는 데에는 실제 독립운동과 국제 정세도 필요했습니다. 정신만 지키면 저절로 독립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이렇게 나온다 국혼·『한국통사』·『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박은식과 연결한다.

이렇게 바꿔 낸다 박은식의 국혼을 백남운의 사회 경제 사학과 바꾼다.

바로 확인

Q02-1 객관식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문헌 고증을 중시하여 진단 학회 조직에 참여하였다.

② 고대사를 연구하며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보았다.

③ 한국사도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을 따랐다고 보았다.

④ 민족의 정신과 역사를 지키는 일이 독립의 바탕이 된다고 보았다.

답

Q02-2 O/X

박은식은 국권을 잃은 뒤에도 역사 기록을 통해 민족정신을 이어 갈 수 있다고 보았다.

답 (O) (X)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

Q02-3 빈칸

박은식이 나라의 정신이라는 뜻으로 강조한 말은 ( )이다.

답 _____

Q03 신채호는 왜 고대사와 민족의 주체성에 주목했을까?

[일제 강점기 · 신채호]

한 줄 답 한국인이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온 사실을 밝혀 식민 사관에 맞서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림



신채호

1880~1936 · Q03

아와 비아 | 고구려 유적 답사 | 낭가 사상 | 『조선상고사』

웹툰 그림(재현) · 실제 얼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구려 유적 답사를 바탕으로 한 장면 재현입니다. 비석은 특정 실물의 정밀 복원이 아닙니다.

말뜻 먼저

▣ 누구·어디·무엇?

- **신채호**: 고대사와 민족의 주체성을 연구한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 의열단의 「조선 혁명 선언」을 작성함. ▶04편

▣ 역사 개념어

- **주체성**: 다른 존재에 끌려가기만 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성격.
- **아·비아**: 아(我)는 자신을 중심에 놓고 보는 주체, 비아(非我)는 그 밖의 상대. 한국사를 설명할 때는 우리 민족과 우리 아닌 상대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음.
- **낭가 사상**: 신채호가 화랑도 등에서 찾은 우리 고유의 자주적 정신. 민족정신과 독립사상의 바탕으로 보았음.

▣ 낱말 풀이

- **고대사**: 역사에서 오래된 고대 시기를 다루는 분야.

한눈에 보기

앞의 **Q02 인물 비교 도식**에서 박은식과 신채호의 저서·핵심어를 함께 확인합니다.

① 우리는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었다

신채호는 한국사가 외부의 지배와 영향으로만 움직였다는 설명에 맞섰습니다. 고대 국가와 인물의 활동을 연구하면서 한국인이 역사의 주체로 행동한 과정을 밝히려 했습니다.

② 아와 비아의 관계에서 주체를 찾았다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는 역사를 바라보는 주체인 나 또는 우리, 비아는 그 밖의 상대입니다. 한국사를 서술할 때 우리 민족을 주체로 놓고 상대와 관계 맺고 맞서는 과정을 살핀 것입니다. 투쟁은 전쟁만을 가리키지 않고 사상과 문화의 대립까지 포함합니다.

③ 고유한 정신을 낭가 사상에서 찾았다

『조선사연구초』에서 신채호는 화랑도 등으로 이어진 고유의 자주적 정신을 낭가 사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민족정신과 독립사상의 원천으로 보았습니다. 국혼·『한국통사』는 박은식, 낭가 사상·아와 비아의 투쟁은 신채호를 구별하는 단서입니다.

사료 읽기 — 신채호, 『조선상고사』 총론

> **역사는 아와 비아가 맞서는 과정이 시간의 흐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넓어졌는지를 적은 기록이다. 여기서 아는 주체의 자리에 선 존재이고, 비아는 그 밖의 상대이다.**

※ 총론 첫 부분을 직접 현대어로 풀어 씀. 현대 번역서의 문장을 옮긴 것이 아님.

시험 포인트

이렇게 나온다 신채호 — 『조선사연구초』·낭가 사상 / 『조선상고사』·아와 비아의 투쟁을 연결한다.

이렇게 바꿔 낸다 『조선상고사』의 저자를 박은식으로 바꾸거나 민족주의 사학에는 자료 검토가 없었다고 단정한다.

바로 확인

Q03-1 객관식

다음 사료의 생각을 펼친 역사학자는?

> "역사는 아와 비아가 맞서는 과정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전개되는 모습을 적은 기록이다."

※ 『조선상고사』 총론의 한 대목을 직접 현대어로 풀어 쓴 사료이다.

① 신채호 ② 박은식

③ 백남운 ④ 정인보

답 ____

Q03-2 O/X

박은식과 신채호는 민족주의 사학의 흐름에 속하지만 대표 저서와 연구의 중심은 달랐다.

답 (O) (X)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

Q03-3 빈칸

신채호의 대표 저서 가운데 고대사를 다룬 책은 『조선( )』이다.

답 ____

Q04 1930년대의 조선학 운동은 무엇을 찾으려 했을까?

[1930년대 · 조선학 운동]

한 줄 답 우리 역사·언어·문화와 실학을 연구하여 한국 문화의 주체성과 발전 가능성을 밝히려 했습니다.

그림



정인보

1893~몰년 미상 · Q04

얼 『여유당전서』 교열 조선학 운동

웹툰 그림(재현) · 실제 얼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생몰년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물 항목 기준입니다.

말뜻 먼저

▣ 누구·어디·무엇?

- **정인보**: 얼을 강조한 역사학자. 『조선사연구』를 쓰고 『여유당전서』의 교열·간행에 참여함.
- **안재홍**: 조선학 운동을 이끈 언론인·민족운동가. 신간회 활동에 참여함. ▶05편
- **문일평**: 조선심을 강조하고 신문·잡지에 역사 이야기를 써 역사의 대중화에 힘쓴 역사학자.
- **정약용**: 조선 후기 사회 제도의 개혁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연구한 실학자.
- 『**여유당전서**』: 정약용의 저술을 모은 책.

▣ 역사 개념어

- **국학**: 우리 역사·언어·문학 등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연구하는 학문.
- **실학**: 조선 후기 현실 문제의 해결과 사회 개혁을 중시한 학문 경향.
- **얼·조선심**: 얼은 정인보, 조선심은 문일평이 강조한 민족의 정신을 가리키는 말.

■ 한눈에 보기

조선학 운동은 무엇을 연구했을까?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
얼 · 『조선사연구』	조선학 · 실학 연구	조선심 · 역사의 대중화

역사·언어·문화의 주체적 연구

실학과 정약용을 다시 읽다

1934년 무렵 정약용 연구 활발
『여유당전서』 정리·간행 → 우리 사회 안의 개혁 사상과 발전 가능성

정약용은 조선 후기 인물입니다. 1930년대에 살아서 연구 모임에 참여한 사람이 아닙니다.

① 우리 문화를 주체적으로 연구한 국학 운동이었다

우리 역사와 우리말 등 우리의 문화·전통을 연구하는 학문이 국학입니다. 이를 통해 민족 문화를 지키려 한 국학 운동의 한 갈래가 조선학 운동입니다. 조선학 운동은 한국 사회 안에도 현실을 비판하고 바꾸려는 사상이 있었음을 밝히며 주체적인 문화를 세우려 했습니다.

② 실학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찾았다

정약용의 실학에는 백성의 생활과 제도의 문제를 살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934년 무렵 정약용 연구가 활발해지고 『여유당전서』 간행(책을 펴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인보·안재홍은 이 책의 교열(글의 잘못을 바로잡음)과 간행에 참여했습니다.

③ 인물마다 남긴 단서를 연결한다

정인보는 민족정신인 얼을 강조하고 『조선사연구』를 썼습니다. 안재홍은 언론·신간회 활동과 함께 조선학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문일평은 조선심을 내세우고 대중에게 역사를 알렸습니다. 박은식의 국혼, 정인보의 얼, 문일평의 조선심은 민족정신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표 인물이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이렇게 나온다 정인보·안재홍·문일평·실학 연구·『여유당전서』를 묶는다.

이렇게 바꿔 낸다 조선학 운동을 조선 총독부가 식민 사관을 퍼뜨린 활동으로 바꾼다.

바로 확인

Q04-1 객관식

조선학 운동과 관련된 활동으로 알맞은 것은?

① 『한국통사』를 저술하여 국혼을 보존하려 하였다.

② 문헌 고증을 내세우며 『진단학보』를 발행하였다.

③ 정약용의 저술을 정리하며 우리 문화의 주체성을 탐구하였다.

④ 『조선사회경제사』로 정체성론을 비판하였다.

답

Q04-2 O/X

조선학 운동은 정약용의 실학을 연구하면서 한국 사회 안의 개혁 사상에 주목하였다.

답 O X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

Q04-3 빈칸

정인보가 민족의 정신을 가리키며 강조한 말은 ( )이다.

답

Q05 백남운은 한국사가 발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어떻게 비판했을까?

[1930년대 · 사회 경제 사학]

한 줄 답 한국사도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법칙에 따라 변화해 왔다고 설명하여 정체성론을 비판했습니다.

그림



백남운

1895~1979 · Q05

『조선사회경제사』 보편적 발전 정체성론 비판

웹툰 그림(재현) · 실제 얼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희전문학교 교수 활동을 바탕으로 한 재현입니다. 특정 강의의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출생 연도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기준입니다. 1894년으로 적은 자료도 있습니다.

말뜻 먼저

▣ 누구·어디·무엇?

- **백남운**: 『조선사회경제사』를 저술한 사회 경제 사학자.

▣ 역사 개념어

- **사회 경제 사학**: 생산 활동과 경제 구조, 계급 관계 등을 중심으로 역사 변화를 설명하는 연구 흐름.
- **유물 사관**: 사람들이 생산하고 살아가는 물질적 조건과 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 변화를 설명하는 관점.

▣ 낱말 풀이

- **보편적**: 특정한 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고 널리 적용되는.
- **법칙**: 현상 사이에서 일정하게 나타나는 관계나 원리.

한눈에 보기

비교	식민 사관의 정체성론	백남운의 설명
변화를 보는 눈	한국은 스스로 발전하지 못했다	한국사에도 사회·경제의 발전 과정이 있었다
세계사와의 관계	한국을 발전 법칙에서 벗어난 예외로 봄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 속에서 이해
대표 단서	정체·발전 부정	『조선사회경제사』(1933)

1 경제와 사회 관계의 변화를 살폈다

백남운은 정치 사건이나 왕의 업적만으로 역사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생산 활동과 토지 소유, 사람들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주목했습니다.

2 한국만 역사의 법칙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백남운은 유물 사관에 따라, 한국사도 다른 나라처럼 일정한 발전 단계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내부의 힘으로 변할 수 없다는 정체성론에 맞선 것입니다. 이 관점은 『조선사회경제사』에 나타납니다.

3 보편적 발전은 모든 사건이 같다는 뜻이 아니다

백남운이 세계사의 보편성을 강조했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같은 해에 똑같은 사건을 겪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차이가 있어도 역사를 설명하는 공통의 발전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관점 읽기 — 백남운의 관점 — 학습용 요약

> **한국 사회의 변화를 다른 민족과 전혀 다른 예외로만 볼 수는 없다. 사회와 경제의 변화 속에서 공통의 발전 과정을 찾을 수 있다.**

※ 『조선사회경제사』의 취지를 재서술함. 원문 인용이 아님.

비유로 이해하기 성장 속도와 공통 과정

아이들이 서고 걷는 때는 서로 달라도, 몸을 지탱하는 힘을 기르고 서서 걷게 된다는 공통된 과정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한 아이에게는 성장 과정 자체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응 아이마다 다른 시기 = 나라별 발전 시기의 차이, 공통된 과정 = 백남운이 말한 보편적 발전 단계

여기까지만 맞다 아이마다 발달 경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 역시 사람의 성장처럼 정해진 순서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며, 발전 단계 설명은 백남운이 따른 하나의 관점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렇게 나온다 생산·경제 구조·보편적 발전·정체성론 비판은 백남운의 단서다.

이렇게 바꿔 낸다 보편적 발전을 세계 모든 나라의 사건·연도가 같다는 주장으로 바꾼다.

바로 확인

Q05-1 객관식

백남운의 역사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혼을 내세워 『한국통사』를 썼다.

② 한국사를 세계사의 발전 법칙으로 설명하며 정체성론을 비판했다.

③ 한국 사회는 외부의 도움 없이는 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④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었다.

답 _____

Q05-2 O/X

백남운은 한국만 세계사의 발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라고 보았다.

답 O X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

Q05-3 빈칸

백남운이 1933년에 펴낸 대표 저서는 『조선( )사』이다.

답 _____

Q06 진단 학회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연구했을까?

[1934년 · 진단 학회]

한 줄 답 문헌 등 사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말뜻 먼저

▣ 누구·어디·무엇?

- **진단 학회**: 1934년 이병도·손진태 등이 조직한 학술 단체. 『진단학보』를 발행함.
- **이병도**: 문헌 고증을 중시한 역사학자. 진단 학회 조직에 참여함.
- **손진태**: 역사·민속을 연구한 학자. 진단 학회 조직에 참여함.

▣ 역사 개념어

- **실증주의 사학**: 사료의 내용과 신뢰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는 연구 흐름.

▣ 낱말 풀이

- **고증**: 자료를 조사하고 비교하여 사실을 확인함.

한눈에 보기

자료를 보며 어떤 질문을 던질까?

연구 흐름	자료를 보며 묻는 질문
민족주의 사학	누가 역사의 주체이며, 어떤 정신을 이어 왔는가?
사회 경제 사학	생산·경제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실증주의 사학	자료를 비교하여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가?

강조점의 구별입니다. 다른 흐름은 자료를 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① 자료에 적혔다고 곧바로 사실은 아니다

옛 기록에도 착오나 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왜 남긴 기록인지 살피고 다른 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진단 학회는 이런 문헌 고증을 중시하며 역사·언어·민속 등을 연구했습니다.

② 한국인 연구자가 학회와 학술지를 만들었다

일본 학자 중심의 청구 학회 등 식민지 학계에 대응하여 한국인 손으로 우리 역사·문화를 연구하려는 뜻도 진단학회 조직의 배경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진단학보』라는 학술지(학문 연구 결과를 싣는 잡지)에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③ 세 흐름을 완전히 막힌 칸으로 보지는 않는다

민족주의 사학도 사료를 검토했고, 실증주의 사학자도 우리 역사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표는 무엇을 특히 강조했는지 비교한 것입니다. 진단 학회를 무장 독립군 단체라고 하거나 조선사 편수회와 같은 기관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같은 경기의 여러 기록을 맞추기

한 경기의 결과를 확인하려고 신문 기사, 사진, 점수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서로 다르면 작성 시점과 근거를 다시 살핍니다.

대응 여러 경기 기록의 대조 = 여러 사료의 고증

여기까지만 맞다 사료는 남아 있는 정도가 서로 다르고 해석이 필요하므로, 자료만 모으면 답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이렇게 나온다 진단 학회·1934·『진단학보』·문헌 고증을 연결한다.

이렇게 바꿔 낸다 실증주의만 사료를 사용하고 나머지 연구는 자료를 쓰지 않았다고 단정한다.

바로 확인

Q06-1 객관식

진단 학회의 활동으로 알맞은 것은?

① 가갸날을 제정하고 동인지 『한글』을 발행하였다.

② 조선 총독부의 역사 편찬 기구로 『조선사』를 편찬하였다.

③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하고 우리말 사전 편찬을 추진하였다.

④ 문헌을 고증하고 『진단학보』에 연구를 발표하였다.

답 ____

Q06-2 O/X

문헌을 고증하는 활동은 민족주의 사학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답 O X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

Q06-3 빈칸

1934년 조직되어 『진단학보』를 발행한 학술 단체는 ( )이다.

답

PART A 한 장 정리

PART A · 식민 사관과 한국인 연구

일제의 역사 지배

조선사 편수회
식민 사관

타율성론

외부 세력에
이끌렸다

정체성론

스스로 발전하지
못했다

당파성론

본래 편을 갈라
다툰다

한국인 연구의 네 흐름

민족주의 사학 · 박은식
국혼·국백
『한국통사』 ·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민족주의 사학 · 신채호
낭가 사상 · 아와 비아의 투쟁
『조선사연구초』 · 『조선상고사』

조선학 운동 · 정인보
얼 · 실학 연구
『조선사연구』 · 『여유당전서』 정리

조선학 운동 · 안재홍
조선학 · 실학 연구
『여유당전서』 정리

조선학 운동 · 문일평
조선심 · 역사의 대중화
신문·잡지를 통한 역사 서술

사회 경제 사학 · 백남운
보편적 발전 법칙 · 유물 사관
『조선사회경제사』

실증주의 사학 · 이병도·손진태
문헌 고증 · 사실 확인
진단 학회 · 『진단학보』

타율성론에는 한국인의 주체적 역사를 밝힌 민족주의 사학, 정체성론에는 보편적 발전을 설명한 사회 경제 사학의 반박이 대응합니다. 당파성론은 특정 흐름 하나와 고정해 짝짓지 않습니다. 조선학 운동은 민족주의 사학의 흐름을 잇는 국학 운동이지만, 여기서는 인물·활동을 구별하기 위해 한 갈래로 나누었습니다.

PART A 회상 문제

RA01 빈칸

한국사는 외부 세력에 이끌렸다는 주장은 (㉠), 한국 사회가 스스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다.

답 ㉠ _____ ㉡ _____

RA02 짧은 서술

박은식이 나라를 잃은 뒤에도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고 본 까닭을 쓰시오.

답 _____

_____

_____

RA03 빈칸

다음 사료를 보고 빈칸을 채우시오.

> “우리말과 역사·종교 같은 정신적 기반은 혼이고, 군대와 재정 같은 물질적 기반은 백이다. 혼을 지킨다면 나라를 되찾을 바탕이 남는다.”

※ 『한국통사』 결론의 혼·백 구별을 직접 현대어로 풀어 쓴 사료이다.

이를 강조한 인물은 (㉠), 사료에서 말한 나라의 물질적 형체를 가리키는 말은 (㉡)이다.

답 ㉠ _____ ㉡ _____

RA04 짧은 서술

백남운과 진단 학회의 연구에서 특히 강조한 점을 각각 쓰시오.

답 _____

_____

_____

PART B 말과 과학을 널리 알린 사람들

Q07 조선어 연구회와 조선어 학회는 서로 다른 단체일까?

[1921~1931 · 우리말 연구]

한 줄 답 1921년 조직된 조선어 연구회가 1931년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바꾸며 연구·통일 사업을 이어 갔습니다.

말뜻 먼저

▣ 누구·어디·무엇?

- **주시경**: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고 가르친 학자. 그의 제자들이 이후 한글 운동을 이어 감.
- **조선어 연구회**: 주시경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1921년 조직한 우리말 연구 단체.
- **조선어 학회**: 1931년 조선어 연구회에서 이름을 바꾸어 우리말 연구·통일·보급을 추진한 단체.
- **가갸날**: 1926년 조선어 연구회 등이 정해 기념한 날. 뒤에 한글날로 이름이 바뀜.

▣ 낱말 풀이

- **개칭**: 이름을 바꿈.
- **보급**: 널리 퍼뜨려 많은 사람이 쓰거나 알게 함.

한눈에 보기

조선어 연구회에서 조선어 학회로

조선어 연구회(1921~1930)	조선어 학회(1931~1942)
한글 강습·보급	우리말 연구·정리 사업 확대
가갸날 제정(1926)	기관지 『한글』 발행(1932)
동인지 『한글』 발행(1927)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발표(1940)
	우리말 사전 편찬 추진 → 조선어 학회 사건(1942)으로 중단

혼동 주의: 1927년은 동인지, 1932년은 학회 기관지 『한글』 입니다.

연구회(1921) → 1931년 개칭 → 학회

주시경(1876~1914)의 연구는 제자들이 이었습니다. 후대 사업에 주시경이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1945 광복 / 광복 후 사전 간행

1947 『조선말 큰사전』 첫 권 → 1957 『큰사전』 완간

> ⚠ **혼동 주의** 가갸날·1927년 동인지는 연구회 시기, 1932년 기관지·1933년 맞춤법 통일안은 학회 시기이다.

조직의 계승: 조선어 연구회 → 1931년 개칭 → 조선어 학회

1945년 광복 이후: 1947년 『조선말 큰사전』 첫 권 → 1957년 『큰사전』 완간

사진



주시경

1876~1914 · Q07

한글 연구 | 제자들의 계승 | 조선어 연구회

1914년 사망. 조선어 연구회·학회의 사업은 제자들이 이었습니다.

사진: 『한글』 제1권 제3호(1932) 수록 · Wikimedia Commons

근거: 구 저작권법상 사진 보호 기간 만료(공표 1932년)

1 말과 글은 생활의 기억을 담고 있었다

우리말에는 일상생활의 표현과 공동체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은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면서 민족의 문화적 기반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2 주시경의 연구를 제자들이 이어 갔다

주시경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어 연구회를 조직했습니다. 강습회를 열고 한글을 연구·보급했으며 가갸날을 정했습니다. 주시경은 1914년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1931년 조선어 학회 활동을 직접 이끌었다고 쓰면 안 됩니다.

3 이름이 바뀌어도 활동의 연결은 이어졌다

조선어 학회는 조선어 연구회와 전혀 관계없이 갑자기 생긴 단체가 아닙니다. 연구회가 이름을 바꾸고 사업을 이어 간 것입니다. 연구회 시기에는 1927년 동인지 『한글』이 나왔고, 학회는 1932년부터 기관지 『한글』을 발행했습니다. 기관지는 단체가 자기 활동과 연구를 알리는 잡지입니다. 1921년 조직, 1931년 개칭을 구별하면 연도가 섞이지 않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활동이 커진 동아리의 새 이름

같은 동아리가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이름을 바꾸고 기존 활동을 이어 간 경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조선어 연구회는 1931년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대응 같은 동아리 = 조선어 연구회, 새 이름 = 조선어 학회

여기까지만 맞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맞춤법 정리와 사전 편찬 등 사업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렇게 나온다 1921 연구회 → 1926 가갸날 → 1931 학회의 순서를 연결한다.

이렇게 바꿔 낸다 주시경이 1931년 조선어 학회를 직접 만들었다고 바꾸거나 연구회와 학회를 무관한 조직으로 나눈다.

바로 확인

Q07-1 객관식

조선어 연구회와 조선어 학회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조선어 연구회가 1931년 이름을 바꾸어 조선어 학회가 되었다.

② 조선어 연구회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하였다.

③ 조선어 학회가 1926년 가갸날을 제정하였다.

④ 조선어 학회가 발행한 기관지 『한글』은 1927년에 창간되었다.

답 ____

Q07-2 O/X

1926년 가갸날을 제정한 단체는 당시 조선어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답 (O) (X)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

Q07-3 빈칸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바꾼 해는 ( )년이다.

답 ____

Q08 맞춤법·표준어·사전은 각각 무엇을 정리하는 일일까?

[1930년대 · 말과 글의 정리]

한 줄 답 맞춤법은 적는 방식, 표준어는 공통으로 쓸 말의 기준, 사전은 낱말의 뜻과 쓰임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말뜻 먼저

▣ 낱말 풀이

- **맞춤법**: 말을 글자로 적을 때 따르는 규칙.
- **표준어**: 공통의 의사소통에 쓰도록 정한 말의 기준.
- **외래어**: 다른 언어에서 들어와 우리말에 쓰이는 낱말.
- **편찬**: 여러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여 책을 만듦.

한눈에 보기

말과 글을 정리하는 네 작업

맞춤법 · 1933

어떻게 적나?
한글 맞춤법 통일안

표준어 · 1936

공통으로 쓸 말은?
조선어 표준말 모음

외래어 표기 · 1940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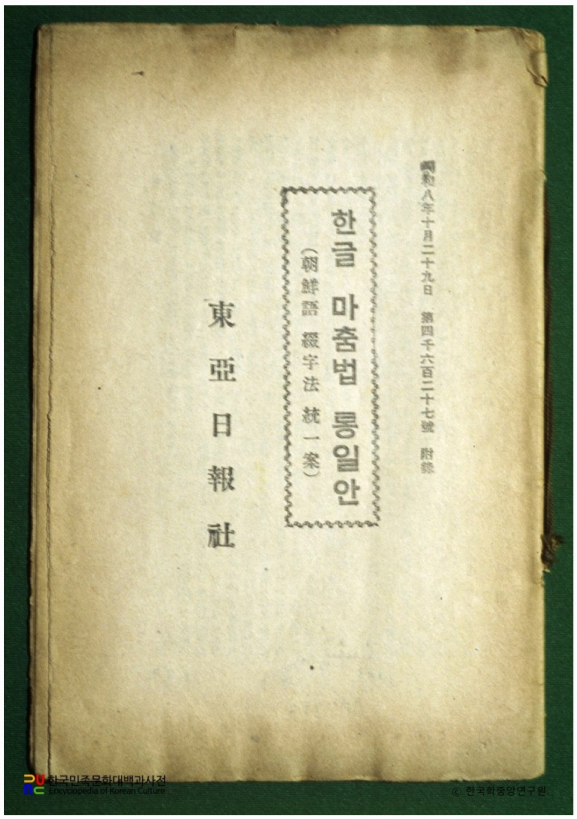
들어온 말을 어떻게 적나?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사전 · 편찬 추진

낱말의 뜻·쓰임은?
우리말 사전 원고 수집·정리

네 작업은 우리말을 연구하고 정리한다는 공통 목표로 연결됩니다.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동아일보 제4627호 부록 · 표지에 1933년 10월 29일 표시
조선어 학회의 맞춤법 통일안이 보급된 실물 자료

[한글맞춤법 통일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 비율 유지

1 같은 말을 서로 읽을 수 있게 했다

말을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으면 책을 만들거나 글을 배우는 데 혼란이 생깁니다. 조선어 학회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하고 표준말을 정리하여 공통의 언어생활에 필요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은 1940년에 발표하여 다른 언어에서 들어온 말을 적는 기준도 정리했습니다.

2 표준어를 정하는 일과 지역말을 없애는 일은 다르다

공통의 기준을 정한다고 해서 지역에서 쓰는 말과 표현이 모두 쓸모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전을 만들려면 실제 사람들이 쓰는 다양한 낱말을 모으고 뜻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사전 편찬: 낱말과 쓰임을 모으다



1930년대 편찬 과정을 표현한 재현 삽화입니다. 실제 인물·사진이 아닙니다.

3 사전은 원고 수집부터 출판까지 긴 작업이었다

전국의 낱말을 모으고, 뜻을 확인하고, 표기와 설명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조선어 학회는 사전 편찬을 추진했지만 일제 강점기에 완간하지 못했습니다. 편찬 시도와 책의 완간은 구별해야 합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는 공동 기록

여러 사람이 함께 기록을 만들 때 표기가 들쭉날쭉하면 같은 항목도 찾기 어렵습니다. 적는 규칙을 맞추고 항목마다 뜻을 정리하면 서로 읽고 찾기 쉬워집니다.

대응 적는 규칙 = 맞춤법, 항목별 뜻 정리 = 사전

여기까지만 맞다 실제 한글 운동은 기록의 편리함을 넘어서 일제의 지배 아래 민족의 말과 문화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렇게 나온다 1933 맞춤법 통일안과 사전 편찬 추진을 구별한다.

이렇게 바꿔 낸다 맞춤법 통일안을 사전 완간으로 바꾸거나 표준어 제정을 한글 창제로 바꾼다.

바로 확인

Q08-1 객관식

조선어 학회의 사업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표준어 정리 — 말을 글자로 적는 규칙 마련

② 사전 편찬 — 1933년에 전권 완간

③ 맞춤법 통일 — 말을 글자로 적는 기준 마련

④ 맞춤법 통일안 — 조선어 연구회가 1926년 발표

답

Q08-2 O/X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조선어 학회가 1933년에 발표하였다.

답 O X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

Q08-3 빈칸

낱말을 모으고 뜻과 쓰임을 정리하여 책으로 만드는 것은 ( ) 편찬이다.

답

Q09 일제는 왜 사전을 만들던 학자들까지 탄압했을까?

[1942 · 조선어 학회 사건]

한 줄 답 우리말 연구와 보급이 민족의식을 지키고 독립의 뜻을 이어 가는 활동이라고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말뜻 먼저

▣ 누구·어디·무엇?

- **이윤재**: 조선어 학회 회원으로 우리말 사전 편찬에 참여한 한글 학자. 학회 사건으로 투옥되어 옥중에서 숨짐.
- **한징**: 조선어 학회 회원으로 우리말 사전 편찬에 참여한 한글 학자. 학회 사건으로 투옥되어 옥중에서 숨짐.

▣ 역사 개념어

- **조선어 학회 사건**: 1942년 일제가 치안 유지법을 적용하여 조선어 학회 관계자들을 검거하고 활동을 탄압한 사건.
- **치안 유지법**: 일제가 자신들의 국가 체제 등을 위협한다고 본 활동을 탄압하는 데 이용한 법.

▣ 낱말 풀이

- **검거**: 수사 기관 등이 사람을 붙잡음.
- **완간**: 여러 권으로 이루어진 책을 마지막 권까지 모두 펴냄.

한눈에 보기

중단된 사전 편찬, 다시 이어지다

낱말·원고 수집과 정리 → 출판 준비

1942 · 탄압과 편찬 중단

관계자 검거·투옥 · 원고 압수
이윤재·한징은 옥중에서 사망

1945 광복 / 이후의 과정

1945 · 원고 발견

서울역 창고에서 압수 원고 발견
사전 편찬 재개

1947 → 1957 · 간행

『조선말 큰사전』 첫 권(1947)
『큰사전』 완간(1957)

중단은 연구 실패나 자발적 휴식이 아니라 일제의 탄압 때문이었습니다.

⚠ **혼동 주의** 1933년 맞춤법 발표, 1942년 학회 사건, 광복 뒤 사전 출판·완간을 구별한다.

1 언어 연구를 민족 운동으로 보았다

1930년대 후반 일제는 학교의 조선어 교육을 줄이고 우리말 사용을 억눌렀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말을 연구하고 보급한 조선어 학회의 활동을 민족정신·독립 의식과 연결해 탄압했습니다. 말과 글을 억압한 정책은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다음 편

2 사람과 연구가 함께 피해를 입었다

이윤재·한징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들이 검거되어 고문과 투옥을 당했습니다. 이윤재와 한징은 옥중에서 숨졌고 사전 원고도 압수되어 편찬이 중단되었습니다.

3 서울역 창고에서 찾은 원고가 편찬을 이었다

광복 직후 서울역 창고에서 일제에 압수되었던 사전 원고를 찾았습니다. 낱말과 뜻풀이를 모아 둔 이 원고를 바탕으로 편찬을 이어, 1947년 『조선말 큰사전』 첫 권을 내고 1957년 『큰사전』 전권을 완간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렇게 나온다 1942년 탄압·편찬 중단과 광복 뒤 출판·완간을 구별한다.

이렇게 바꿔 낸다 조선어 학회가 1933년에 사전을 완간하고 1942년에 맞춤법을 제정했다고 뒤집는다.

바로 확인

Q09-1 객관식

조선어 학회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

①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②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처음 발표되었다.

③ 우리말 사전 전권이 출판되었다.

④ 학회 관계자들이 검거되고 사전 편찬이 중단되었다.

답

Q09-2 O/X

조선어 학회 사건은 일제가 우리말 연구를 민족의식과 연결된 활동으로 경계했음을 보여 준다.

답 O X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

Q09-3 빈칸

조선어 학회 관계자들이 검거되어 사전 편찬이 중단된 사건은 ( )년에 일어났다.

답

Q10 안창남의 비행과 발명학회는 왜 관심을 모았을까?

[1920년대 ·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

한 줄 답 한국인도 근대 과학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이고, 기술을 널리 알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림



안창남

1901~1930 · Q10

금강호 | 1922년 | 고국 방문 비행

웹툰 그림(재현) · 실제 얼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복엽기의 모양은 금강호의 정밀 복원이 아닙니다.

말뜻 먼저

▣ 누구·어디·무엇?

- **안창남**: 1922년 고국 방문 비행으로 큰 관심을 모은 한국인 비행사.
- **금강호**: 안창남이 고국 방문 비행 때 탄 비행기.
- **김용관**: 발명학회와 과학 대중화 운동을 이끈 인물.
- **발명학회**: 1924년 김용관 등이 조직하여 공업 지식과 발명의 보급을 추구한 단체.

▣ 낱말 풀이

- **발명**: 전에 없던 기술이나 물건 등을 새롭게 만들어 냄.

한눈에 보기

계기·활동	나타난 반응·목표
안창남의 고국 방문 비행(1922)	비행 기술에 대한 관심과 민족적 자부심
발명학회 조직(1924)	공업 지식과 발명 정신의 보급

⚠ **혼동 주의** 발명학회·『과학 조선』은 과학 지식 보급, 조선학 운동은 국학 연구와 연결한다.

1922년, 고국 방문 비행을 바라보다



안창남의 고국 방문 비행을 소재로 한 재현 삽화입니다.
실제 사진이나 기체·지형의 정밀 복원도가 아닙니다.

1 하늘을 나는 모습이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안창남의 고국 방문 비행을 본 사람들은 한국인도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활용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비행 기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였습니다.

2 관심을 생활과 산업의 기술로 연결하려 했다

김용관 등은 발명학회를 조직하여 공업 지식과 발명을 알리려 했습니다. 과학 기술을 일부 전문가의 지식으로만 두지 않고 생활과 산업의 문제를 해결할 힘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3 기술의 보급과 산업 지배는 구별한다

과학을 배우고 발명을 돕는다고 식민지의 경제적 제약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이 기술을 익히려는 활동과 일제가 자기 필요에 따라 산업을 운영한 정책은 주체와 목적이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이렇게 나온다 안창남의 비행(1922)과 발명학회 조직(1924)을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 확대와 연결한다.

이렇게 바꿔 낸다 발명학회를 조선학 운동의 연구 단체로, 『과학 조선』을 역사 연구 잡지로 바꾼다.

바로 확인

Q10-1 객관식

1922년에 일어난 과학 기술 관련 활동으로 옳은 것은?

① 금강호를 탄 안창남이 고국 방문 비행을 하였다.

② 대중 과학 잡지 『과학 조선』이 창간되었다.

③ 과학 지식 보급회가 조직되었다.

④ 김용관 등이 발명학회를 조직하였다.

답 ____

Q10-2 O/X

발명학회는 주로 역사 문헌을 고증하고 『진단학보』를 발행한 단체였다.

답 (O) (X)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

Q10-3 빈칸

1922년 금강호를 타고 고국 방문 비행을 한 비행사는 ( )이다.

답 ____

Q11 과학의 날에는 왜 강연과 견학 같은 행사를 열었을까?

[1930년대 · 과학 대중화]

한 줄 답 과학을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생활과 산업에 활용하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말뜻 먼저

▣ 누구·어디·무엇?

- 『**과학 조선**』: 1933년 창간된 대중 과학 잡지.
- **과학 지식 보급회**: 1934년 조직되어 과학 지식의 보급과 과학 대중화 운동을 추진한 단체.

▣ 역사 개념어

- **과학 대중화 운동**: 과학 지식과 기술을 널리 알려 많은 사람이 접하고 활용하게 하려는 운동.

▣ 낱말 풀이

- **견학**: 실제 현장을 찾아가 보고 배움.
- **관제**: 관청이 주도하여 만듦.

한눈에 보기

과학 지식을 만나는 여러 길

잡지
『과학 조선』 발행 · 1933
독자가 지식을 읽는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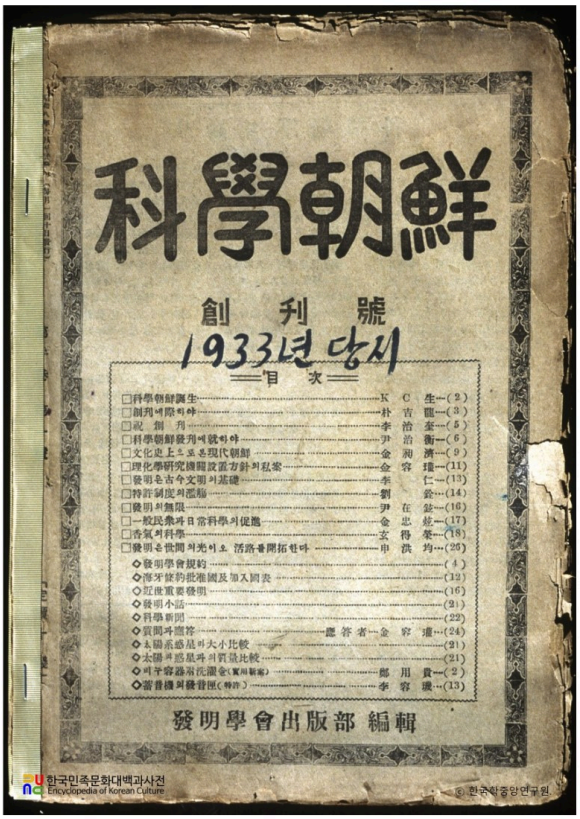
강연·방송
과학의 날 행사 · 1934
당시 첫 행사는 4월 19일

공장 견학
현장에서 기술을 살피며
지식과 실제 기술을 연결

과학 지식을 이해하고 생활·산업에 활용

1934 과학 지식 보급회 조직
1938 김용관 체포 등으로 운동 위축

『과학 조선』 창간호 · 1933



표지에서 '창간호'와 '1933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학 지식과 기술을 대중에게 알리는 잡지였습니다.

[과학조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 비율 유지

1 강연과 잡지는 과학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다

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람도 잡지를 읽거나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학 대중화 운동은 새로운 지식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려 했습니다. 1934년에는 과학 지식 보급회가 조직되어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했습니다.

2 직접 보는 경험도 중요했다

공장 견학과 시범은 설명으로만 들은 기술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과학의 날 행사는 과학을 시험 과목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생활·산업과 연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첫 과학의 날 행사는 다윈의 기일인 1934년 4월 19일에 열렸습니다. 다윈은 생물의 진화를 연구한 영국의 과학자입니다.

과학 강연: 지식과 기술을 만나다



과학 대중화의 취지를 표현한 재현 삽화입니다. 특정 강연의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3 일제의 탄압으로 활동에 제약이 생겼다

1938년 김용관이 체포되는 등 탄압이 이어지면서 운동은 위축(활동이나 기세가 줄어듦)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과학 지식을 널리 알리려 한 운동의 주체와, 이를 통제한 조선 총독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당시 4월 19일 행사는 오늘날 4월 21일 과학의 날과 날짜·제도가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이렇게 나온다 김용관·『과학 조선』·1934년 과학의 날 행사를 묶는다.

이렇게 바꿔 낸다 김용관 등 한국인이 추진한 과학의 날 행사를 조선 총독부가 주관한 관제 행사로 바꾼다.

바로 확인

Q11-1 객관식

1930년대 과학 대중화 운동의 사례로 알맞은 것은?

① 『여유당전서』의 교열
② 가갸날의 제정
③ 과학 잡지 발간과 강연·공장 견학
④ 일본식 이름 사용의 강요

답 ____

Q11-2 O/X

과학 대중화 운동의 과학의 날 행사는 조선 총독부가 주관한 관제 행사였다.

답 (O) (X)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

Q11-3 빈칸

김용관 등이 1933년에 창간한 대중 과학 잡지는 『( )』이다.

답 ____

PART B 회상 문제

RB01 빈칸

조선어 연구회 조직은 (㉠)년, 조선어 학회로의 개칭은 (㉡)년이다.

답 ㉠ _____ ㉡ _____

RB02 짧은 서술

맞춤법 통일과 사전 편찬이 무엇을 정리하는 일인지 각각 쓰시오.

답 _____

_____

_____

RB03 O/X

조선어 학회의 사전 편찬은 1942년에 중단되었지만 광복 뒤 다시 이어졌다.

답 O X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

RB04 짧은 서술

과학 대중화 운동이 과학 강연과 잡지 발행을 추진한 목적을 쓰시오.

답 _____

_____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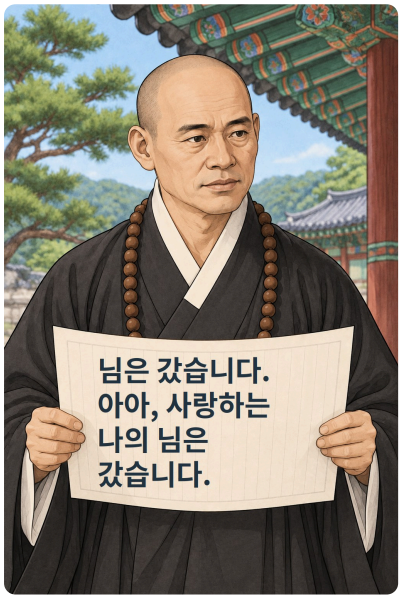
PART C 신앙과 문화 속의 여러 대응

Q12 종교 단체들은 신앙 활동 말고 어떤 일을 했을까?

[일제 강점기 · 종교계의 활동]

한 줄 답 교육·출판·생활 개선과 독립운동 등 여러 방식으로 사회와 민족의 문제에 참여했습니다.

그림



한용운

1879~1944 · Q12·Q14

승려·시인 | 「님의 침묵」 | 불교 개혁 | 사찰령 폐지 | 불교 청년 운동

웹툰 그림(재현) · 실제 얼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고: 한용운, 「님의 침묵」(1926) 첫 구절 · 현대 표기.
조선 불교 유신회는 불교 청년들의 단체입니다.

말뜻 먼저

▣ 누구·어디·무엇?

- **천도교**: 동학을 계승한 종교. 잡지 발행과 청년·소년 운동 등에 참여함.
- **대종교**: 단군을 중심으로 민족의 뿌리를 강조한 종교. 만주 독립운동과 연결됨.
- **개신교**: 크리스트교의 한 갈래. 학교 설립·계몽 활동에 참여했으며 일부 신자·학교는 신사 참배를 거부함.
- **천주교**: 크리스트교의 한 갈래. 고아원·양로원 등 사회 사업을 벌였고, 만주의 신자들은 의민단을 조직함.
- **중광단·북로 군정서**: 대종교계와 연결된 만주의 항일 조직들. 북로 군정서는 청산리 전투에 참여함. ▶04편
- **의민단**: 만주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항일 단체.
- **한용운**: 불교계의 개혁·독립운동에 참여한 승려이자 시인. 사찰령 폐지 운동을 펼침.
- **원불교·박중빈**: 박중빈이 1916년 창시(종교를 처음 시작함)한, 불교에 바탕을 둔 종교. 근검절약과 생활 개선 등을 강조함.

▣ 역사 개념어

- **사찰령**: 일제가 사찰의 운영과 주지 임명 등을 통제하는 데 이용한 법령. 사찰은 절, 주지는 절을 맡아 관리하는 승려를 뜻함.

▣ 낱말 풀이

- **근검절약**: 부지런히 일하고 아껴 씀.
- **허례**: 실제 뜻보다 겉모양과 형식에만 치우친 예절.

■ 한눈에 보기

종교계 활동 여섯 갈래

종교	대표 활동	연결·의미
천도교	『개벽』·『어린이』·『신여성』 등 잡지, 청년·소년 운동	▶06편 소년 운동
대종교	중광단 등 만주 항일 운동, 북로 군정서와 연결	▶04편 무장 독립 투쟁
개신교	학교·사회 활동, 민족 운동 참여와 일부의 신사 참배 거부	▶02편 3·1 운동
천주교	고아원·양로원 등 사회 사업, 만주 의민단의 항일 활동	만주의 항일 활동
불교	한용운의 사찰령 폐지 운동 · 청년들의 조선 불교 유신회	종교와 민족 문제의 연결
원불교	근검절약·허례 폐지 등 새 생활 운동	일상생활의 개선

출판·교육, 만주 항일 활동, 생활 개선은 서로 겹칠 수 있습니다. 여섯 종교가 하나의 조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북간도의 종교계 항일 활동

1920년 무렵의 활동 지역과 조직 관계를 함께 봅니다.



점선 타원은 활동·전투 지역의 대략적 범위입니다. 개별 부대의 정확한 주둔지나 이동 경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대종교 계통의 연결

중광단 → 대한정의단 등 조직 개편
→ 북로 군정서
북로 군정서는 청산리 전투와 연결

천주교인 중심의 조직

의민단 · 왕청현 춘화향에서 조직
만주 지역의 항일 활동

지형: Natural Earth 공개 데이터(해안선·압록강·두만강), 단순화한 지리 바탕
조직·지역 근거: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 사람이 모인 조직은 사회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종교 단체에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뜻을 나눌 수 있는 연결망이 있었습니다. 학교와 출판, 청년 활동을 통해 지식을 전하고 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② 출판·무장 항일·생활 개선으로 활동이 이어졌다

천도교는 『개벽』·『어린이』 등을 발행하며 계몽과 소년 운동을 펼쳤습니다. 대종교계가 세운 중광단의 계통은 북로 군정서로 이어졌고, 북로 군정서는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조직한 의민단도 만주에서 항일 활동을 했습니다. 원불교는 근검절약·허례 폐지 등 새 생활 운동을 벌였습니다.

③ 불교의 자주성을 지키려 사찰령에 맞섰다

일제는 사찰령을 통해 절의 운영과 주지 임명 등을 통제했습니다. 한용운은 이 법령을 없애자는 사찰령 폐지 운동을 펼쳤습니다. 불교 청년들은 조선 불교 유신회를 결성하여 불교의 개혁과 자주성을 추구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렇게 나온다 천도교는 잡지·소년 운동, 대종교는 만주 항일 운동, 원불교는 새 생활 운동으로 구별한다.

이렇게 바꿔 낸다 각 종교의 대표 활동을 바꾸거나 모든 신자의 대응이 같았다고 단정한다.

바로 확인

Q12-1 객관식

종교와 활동의 연결로 옳은 것은?

① 대종교 — 『개벽』을 발행하며 소년 운동을 펼침

② 천도교 — 잡지 발행과 소년 운동에 참여함

③ 천도교 — 만주에서 중광단을 조직함

④ 원불교 — 한용운이 사찰령 폐지 운동을 펼침

답 ____

Q12-2 O/X

원불교의 생활 개선 운동과 대종교계의 만주 항일 활동은 같은 방식의 활동이었다.

답 O X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

Q12-3 빈칸

박중빈이 창시하여 새 생활 운동을 전개한 종교는 ( )이다.

답 ____

Q13 신사 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은 무엇에 맞선 것일까?

[1930년대 이후 · 종교계와 식민 권력]

한 줄 답 일본의 국가 의례에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식민 권력에 맞섰으며,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는 뜻도 있었습니다.

말뜻 먼저

▣ 누구·어디·무엇?

- **신사**: 일본 고유의 신앙인 신도(神道)와 관련된 제사 시설. 일제는 신사 참배를 황국 신민화에 이용함.
- **조선 신궁**: 1925년 서울 남산에 세운 신사.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와 연결된 장소.
- **숭실학교**: 평양의 개신교계 학교. 신사 참배 강요를 거부하여 1938년 폐교됨.

▣ 역사 개념어

- **황국 신민화**: 한국인을 일본의 군주인 일왕에게 충성하는 백성으로 만들려 한 동화 정책(한국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없애고 일본인처럼 만들려 한 정책).
- **황국 신민**: 황국은 일왕이 다스리는 나라 일본, 신민은 그 백성이라는 뜻.

▣ 낱말 풀이

- **강요**: 상대가 원하지 않아도 억지로 하게 함.
- **신앙의 자유**: 믿을 종교를 선택하고 그 믿음에 따라 생활할 자유.

한눈에 보기

신사 참배 강요와 서로 다른 대응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

"국가 의례"를 내세워 학교·신자·종교 단체에도 요구
실제로는 일본 지배와 일왕 중심 질서에 대한 복종 요구
조선 신궁: 남산에 세움(1925)

거부·저항 → 탄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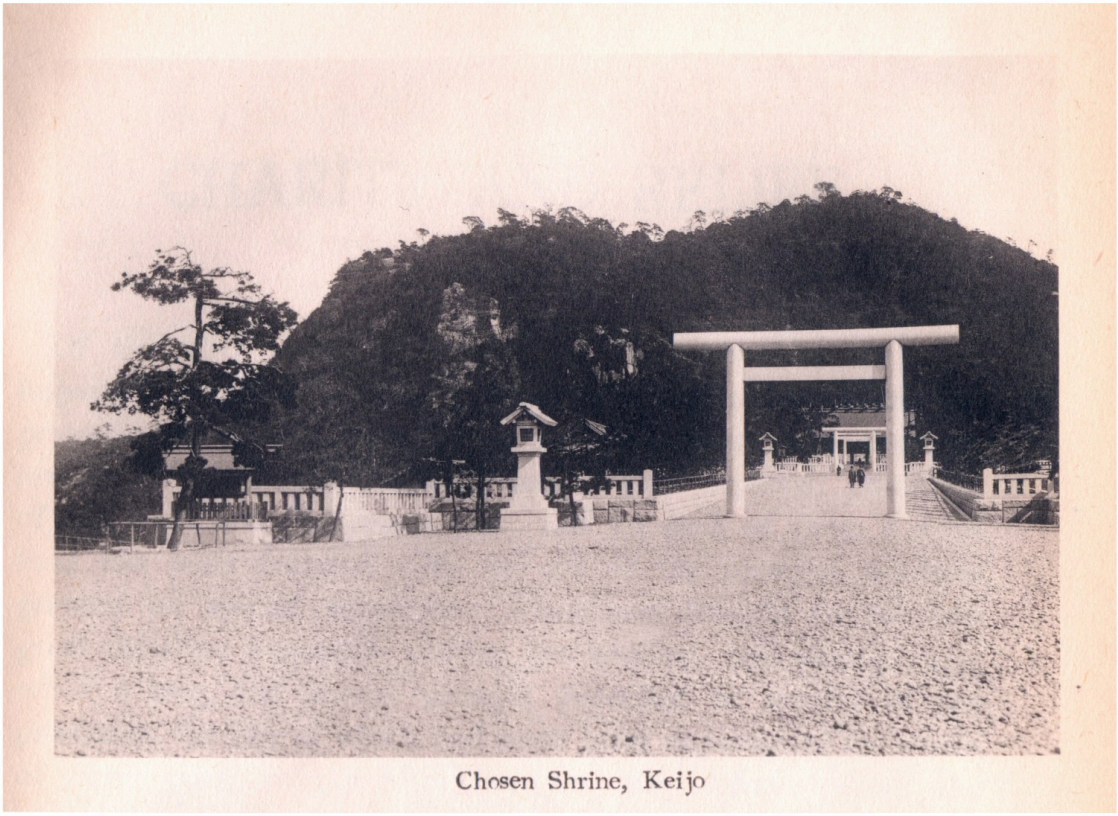
신앙의 자유와 식민 권력의 강요가 겹친 문제
사례: 숭실학교 폐교(1938)

수용·협력

신사 참배를 수용하거나
일제의 요구에 협력한 대응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대응입니다. 상자의 크기는 비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남산의 조선 신궁



자료 시기: 1928년 · 『ANNUAL REPORT』 수록
조선 신궁을 세운 1925년과 이 자료의 시기를 구별합니다.

서울역사박물관 · 조선신궁 · H-TRNS-78883-820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 비율 유지

1 개인의 믿음에만 머문 문제가 아니었다

일제는 신사 참배를 국가 의례라고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기 어렵게 만들고 충성을 요구했으므로 식민 지배와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신앙의 자유와 민족의 자주성이 겹쳐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2 일제는 신사를 세워 충성을 요구했다

1925년 서울 남산에 조선 신궁이 세워졌습니다. 1930년대에 일제는 신사 참배 강요를 강화하며 학교와 종교 단체에도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참배 강요는 신앙뿐 아니라 식민지 주민을 일본의 지배 질서에 복종시키려는 정책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3 숭실학교는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 문을 닫았다

평양의 숭실학교는 신사 참배 강요를 거부하다 1938년 폐교되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는 거부가 학교 운영 중단으로 이어진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한편 일부 종교 지도부는 참배를 수용하거나 일제에 협력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렇게 나온다 강요한 주체·충성을 요구한 목적·대응의 차이를 함께 본다.

이렇게 바꿔 낸다 신사 참배가 완전히 자유로운 개인 선택이었거나 종교계 전체가 같은 대응을 했다고 바꾼다.

바로 확인

Q13-1 객관식

신사 참배 강요와 종교계의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제는 신사 참배를 특정 종교 신자에게만 요구하였다.

② 신사 참배 강요는 1910년대 무단 통치를 대표하는 정책이었다.

③ 개신교 지도부는 모두 끝까지 참배를 거부하였다.

④ 일제의 복종 요구에 맞서 일부 신자·학교가 참배를 거부했다.

답 ____

Q13-2 O/X

신사 참배 강요는 황국 신민화 정책과 관련이 있다.

답 (O) (X)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

Q13-3 빈칸

한국인을 일왕에게 충성하는 백성으로 만들려 한 정책을 ( )라고 한다.

답 ____

Q14 일제 강점기의 문학은 모두 같은 생각을 담았을까?

[1920~1940년대 · 문학]

한 줄 답 민족의 정서, 노동자·농민의 현실, 인간의 내면, 일제에 대한 저항 등 서로 다른 관심이 나타났습니다.

말뜻 먼저

▣ 누구·어디·무엇?

- **김소월·한용운**: 1920년대 우리말로 민족의 정서와 삶의 문제를 표현한 대표 시인들.
- **이육사·윤동주**: 일제 강점기에 저항 의식과 현실에 대한 성찰을 시로 표현한 대표 시인들.
- **카프(KAPF,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 동맹)**: 1925년 조직되어 사회주의의 영향 아래 노동자·농민의 현실과 계급 문제를 다룬 예술 단체. 프롤레타리아는 노동자 계급을 뜻함.

▣ 역사 개념어

- **동인지**: 뜻이나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잡지.
- **순수 문학**: 정치·사회적 주장보다 언어의 아름다움과 개인의 내면 등 문학 자체의 가치를 중시한 문학.
- **친일 문학**: 일제의 지배와 침략 전쟁에 협력한 문학.

▣ 낱말 풀이

- **성찰**: 자신의 생각과 행동, 처지를 깊이 돌아봄.

한눈에 보기

문학의 여러 관심과 태도

동인지의 확산: 『창조』(1919) · 『폐허』(1920) · 『백조』(1922)

민족의 정서·우리말

김소월 · 한용운

계급 문제

카프: 1925 조직 · 1935 해산

순수 문학

1930년대 시문학파
언어의 아름다움·내면

저항과 성찰

이육사 · 윤동주

친일 문학

일제 지배·침략 전쟁에 협력

동시에 나타난 서로 다른 흐름을 비교한 것입니다. 하나의 문학이 차례로 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 **혼동 주의** 카프의 계급 문학, 순수 문학, 저항 문학, 친일 문학의 관심과 태도를 구별한다.

시로 드러낸 저항과 성찰

사진



이육사

1904~1944 · Q14

대표 시 「광야」 저항 의식

사진



윤동주

1917~1945 · Q14

대표 시 「서시」 성찰

이육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공공누리 제0유형 · © 이** 표기 유지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55), 3쪽 · Wikimedia Commons
윤동주 사진 근거: 구 저작권법상 사진 보호 기간 만료(공표 1955년)

1 함께 잡지를 만들며 새로운 작품을 발표했다

1919년 『창조』를 비롯해 1920년 『폐허』, 1922년 『백조』 등 여러 동인지가 나왔습니다. 작가들은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고 삶과 사회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우리말로 작품을 쓰고 읽는 일은 우리말 문화를 이어 가는 데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2 계급 문제와 문학 자체의 가치에 관심을 두었다

카프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계급 문제와 노동자·농민의 현실을 중시했습니다. 1930년대에는 시문학파 등 순수 문학의 흐름도 나타나 언어의 아름다움과 개인의 내면을 탐구했습니다.

3 탄압 속에서 저항과 협력의 문학이 나타났다

카프는 일제의 탄압 속에 1935년 해산되었습니다. 이육사·윤동주는 저항 의식과 자기 성찰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이와 달리 일제의 지배와 침략 전쟁에 협력한 친일 문학도 나타났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렇게 나온다 카프는 사회주의·계급 문제, 이육사·윤동주는 저항과 성찰의 단서다.

이렇게 바꿔 낸다 카프를 순수 문학 동인지로 바꾸거나 이육사·윤동주를 친일 문학의 대표로 묶는다.

바로 확인

Q14-1 객관식

카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20년대 순수 문학을 내세운 동인지였다.

②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한 우리말 연구 단체였다.

③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노동자·농민의 현실과 계급 문제를 다루었다.

④ 『개벽』을 발행한 천도교의 단체였다.

답 _____

Q14-2 O/X

1930년대 시문학파는 계급 문제를 앞세운 카프의 대표 문학 단체였다.

답 (O) (X)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

Q14-3 빈칸

『창조』·『폐허』·『백조』 처럼 뜻이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만든 잡지를 ( )라고 한다.

답 _____

Q15 영화와 연극은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주었을까?

[1920~1930년대 · 영화와 연극]

한 줄 답 여러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보고 인물의 처지와 감정에 공감하는 새로운 문화 경험을 주었습니다.

말뜻 먼저

▣ 누구·어디·무엇?

- **나운규·「아리랑」** : 나운규가 제작·감독·출연에 참여한 1926년 영화. 식민지 현실 속 관객의 공감을 얻음.
- **토월회**: 1923년 조직되어 신극 운동을 펼친 단체.
- **극예술 연구회**: 1931년 조직되어 신극 운동을 전개한 단체.

▣ 역사 개념어

- **신극**: 근대적인 연극 형식과 연출을 추구한 연극의 흐름.
- **무성 영화**: 배우의 대사 등 소리가 필름에 함께 기록되지 않은 영화.
- **변사**: 무성 영화를 상영할 때 화면 곁에서 줄거리와 인물의 대사·감정을 설명하던 사람.
- **조선 영화령**: 1940년 일제가 영화의 제작·배급·상영 등을 통제하려고 시행한 법령.

▣ 낱말 풀이

- **검열**: 권력이 발표 전후에 내용을 살펴 제한하는 일.

한눈에 보기

분야	대표 사례	내용과 조건
영화	나운규의 「아리랑」(1926)	이야기와 영상으로 관객의 공감을 얻음
연극	토월회(1923)·극예술 연구회(1931)	새로운 무대 표현과 신극 운동
공통 조건	공연·상영·발표	일제의 검열과 통제 아래 활동

사진



나운규

1902~1937 · Q15

영화 「아리랑」(1926) 영화 제작·연기

[나운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영화진흥공사 제공
공공누리 제0유형 · 사진 촬영 연도 미상 · 원본 비율 유지

영화와 연극, 표현 방법을 비교하다



왼쪽: 영화 화면 속 이야기·화면 곁 변사의 설명 / 오른쪽: 무대 위 배우의 연기
특정 영화·공연의 실제 장면이 아닌 재현 삽화입니다.

1 움직이는 장면과 무대가 이야기를 전달했다

영화와 연극은 글을 읽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삶을 보여 주었습니다. 관객은 인물의 행동과 사건을 보며 감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는 도시의 극장과 공연장을 중심으로 퍼졌습니다. 당시 무성 영화 상영관에서는 화면 곁의 변사가 줄거리와 대사·감정을 설명했습니다. 연극에서는 무대 위 배우가 직접 연기하고 말합니다.

② 「아리랑」은 관객의 처지와 만났다

나운규의 「아리랑」은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작품 속 이야기를 보는 경험이 자신들의 처지와 민족적 감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③ 조선 영화령으로 통제를 강화했다

일제는 영화 검열에 더해 1940년 조선 영화령을 시행하여 영화의 제작·배급·상영을 통제했습니다. 누가 영화를 만들고 유통할 수 있는지까지 제약하며 영화를 지배와 전쟁 동원에 이용하려 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렇게 나온다 나운규·「아리랑」은 영화, 토월회·극예술 연구회는 연극과 연결한다.

이렇게 바꿔 낸다 극예술 연구회를 한글 연구 단체로 바꾸거나 일제의 검열이 없었다고 한다.

바로 확인

Q15-1 객관식

분야와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연극 — 토월회와 극예술 연구회
② 영화 — 토월회
③ 연극 — 나운규의 「아리랑」
④ 대중가요 — 극예술 연구회

답 ____

Q15-2 O/X

나운규의 「아리랑」은 토월회가 무대에 올린 신극이었다.

답 (O) (X)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

Q15-3 빈칸

1926년 영화 「아리랑」과 연결되는 인물은 ( )이다.

답 ____

Q16 라디오와 유성기는 문화를 어떻게 바꾸었을까?

[1920~1930년대 · 대중 매체]

한 줄 답 소리와 노래를 더 넓게 전달하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게 하여 대중문화의 확산을 도왔습니다.

말뜻 먼저

▣ 누구·어디·무엇?

- **윤심덕·「사의 찬미」** : 윤심덕이 부른 노래와 1926년 음반. 대중가요의 유행을 보여 주는 사례.
- **유성기(축음기)**: 음반에 기록된 소리를 재생하는 기계.
- **경성 방송국**: 1927년 서울에서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 방송국.

▣ 역사 개념어

- **대중문화**: 많은 사람이 매체를 통해 접하고 즐기는 문화.
- **매체**: 소식이나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

▣ 낱말 풀이

- **선전**: 특정 생각이나 행동을 따르도록 널리 알리고 설득함.

한눈에 보기

매체의 기능과 사용 목적

매체	특징	함께 볼 조건
라디오	방송을 통해 떨어진 곳에 소식·음악 전달	식민 권력의 통제와 전쟁 선전에도 이용
유성기(축음기)·음반	녹음된 노래를 반복하여 재생	구입 비용과 장소 등에 따른 이용 차이
신문·잡지	글과 그림으로 정보·작품 확산	검열과 독자의 읽기 능력·구매 여건

같은 전달 수단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살핍니다.

경성 방송국: 정동에서 1927년 방송 시작
라디오는 과학 강연과 전쟁 선전처럼 서로 다른 목적에도 쓰였습니다.

라디오와 유성기, 소리를 만나는 두 방법



왼쪽: 전파를 받아 소리를 전하는 라디오
오른쪽: 음반을 반복 재생하는 유성기(축음기)
1930년대 기기를 참고한 재현 삽화입니다. 특정 소장품의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1 방송과 음반은 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이 달랐다

1927년 경성 방송국이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는 방송국이 보내는 소리를 받아 음악·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유성기는 음반에 녹음된 소리를 재생하여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2 음반을 사면 같은 노래를 다시 들을 수 있었다

1926년 윤심덕의 「사의 찬미」 음반은 대중가요의 유행을 보여 줍니다. 유성기와 음반의 보급은 가수가 눈앞에서 노래하지 않아도 노래를 듣는 경험을 늘렸습니다. 기기·음반을 살 비용과 생활 조건에 따라 이용 기회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3 방송국과 전쟁 선전이 연결되었다

경성 방송국은 조선 총독부의 감독과 통제 아래 운영되었습니다. 라디오는 음악과 소식을 전하는 한편, 일제가 전쟁을 정당화하고 동원(전쟁에 필요한 사람·물자를 모음)을 독려(적극 참여하도록 재촉함)하는 선전 수단으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렇게 나온다 경성 방송국·1927년·라디오 방송 / 유성기·음반 재생 / 윤심덕·「사의 찬미」를 연결한다.

이렇게 바꿔 낸다 라디오와 유성기의 기능을 바꾸거나 「사의 찬미」를 나운규의 영화로 바꾼다.

바로 확인

Q16-1 객관식

라디오·음반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라디오는 음반에 기록된 소리를 재생하는 기계였다.

② 윤심덕의 「사의 찬미」는 단성사에서 개봉한 영화였다.

③ 라디오 방송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뒤 처음 시작되었다.

④ 문화가 널리 퍼졌지만 이용 격차와 권력의 통제도 있었다.

답 ____

Q16-2 O/X

음반을 재생하는 유성기(축음기)가 보급되면서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답 O X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

Q16-3 빈칸

1926년 「사의 찬미」 음반을 남긴 가수는 ( )이다.

답 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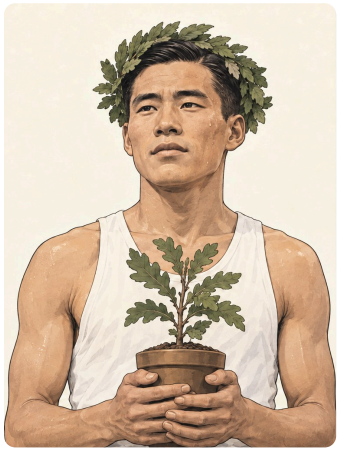
Q17 손기정의 우승은 왜 기쁨과 안타까움을 함께 남겼을까?

[1936 · 베를린 올림픽]

한 줄 답 한국인 선수의 성취는 자부심을 주었지만, 나라를 빼앗겨 일본 대표로 출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936년 베를린의 두 마라톤 선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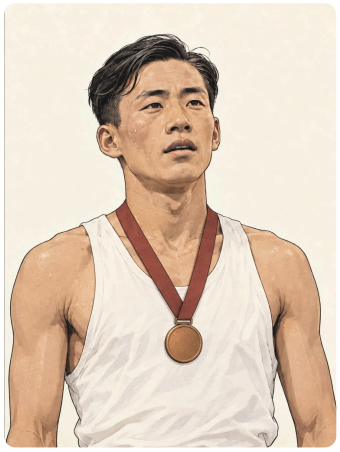
손기정

1912~2002 · Q17

1936년 베를린 · 마라톤 1위

월계관·화분 · 일본 대표 출전

그림



남승룡

1912~2001 · Q17

1936년 베를린 · 마라톤 3위

동메달 · 일본 대표 출전

웹툰 그림(재현) · 실제 얼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시 경기복·월계관·화분·동메달을 나타낸 재현입니다. 국기 표지는 생략했습니다.

말뜻 먼저

▣ 누구·어디·무엇?

- **손기정·남승룡**: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각각 1위와 3위를 한 한국인 선수들.
- **베를린**: 독일의 도시. 1936년 올림픽 개최지.

▣ 역사 개념어

- **일장기 말소 사건**: 1936년 신문에 실린 손기정 사진에서 유니폼의 일장기를 지워 일제의 탄압을 받은 사건.

▣ 낱말 풀이

- **폐간**: 신문·잡지 발행을 아예 그만둠.
- **무기 정간**: 신문·잡지의 발행을 기한을 정하지 않고 멈추게 하는 처분.
- **휴간**: 신문·잡지 발행을 잠시 쉼.

■ 한눈에 보기

1936년 베를린, 세 층위를 구별하기

01 선수의 성취

손기정 1위 · 남승룡 3위
한국인의 능력과 민족적 자부심

02 출전 자격

두 선수 모두 일본 대표로 출전
주권을 잃은 식민지 현실

03 신문사의 사진 편집

보도 사진에서 손기정의 일장기를 지움
신문사 관계자의 민족의식 표현과 언론 탄압

『동아일보』 : 무기 정간
『조선중앙일보』 : 휴간 뒤 1937년 폐간

① 경기의 성취는 한국인들에게 자부심을 주었다

축구·야구·마라톤 같은 근대 스포츠가 확산되면서 경기를 응원하고 결과를 함께 기뻐하는 경험이 늘었습니다. 1920년 조직된 조선 체육회가 활동했고, 경성·평양의 축구팀이 겨룬 경평 축구 대회도 열렸습니다. 손기정과 남승룡의 성적은 많은 한국인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② 선수의 출신과 출전 국가가 달랐다

두 선수는 한국인이지만 일본의 식민 지배 아래 일본 대표로 출전했습니다. 따라서 성적을 한국인의 성취로 보는 것과 당시 공식 출전 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함께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했다고 쓰면 시기를 잘못 옮긴 것입니다.

③ 두 신문은 일장기를 지운 뒤 서로 다른 경과를 겪었다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손기정 사진의 일장기를 지워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무기 정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선중앙일보』는 휴간한 뒤 다시 발행하지 못하고 1937년 폐간되었습니다. 민족의식을 담은 사진 보도가 식민 권력의 언론 탄압과 맞물린 사건입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다른 학교 이름이 적힌 명찰

내 실력으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는데 명찰에는 다른 학교 이름이 적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취의 주인과 명찰에 적힌 소속이 어긋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대응 실력으로 낸 성취 = 손기정·남승룡의 성적, 다른 학교 명찰 = 일본 대표 출전

여기까지만 맞다 학교를 옮긴 개인 사정이 아니라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결과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렇게 나온다 손기정 1위·남승룡 3위 / 일본 대표 / 『동아일보』 무기 정간·『조선중앙일보』 휴간 뒤 폐간을 구별한다.

이렇게 바꿔 낸다 남승룡의 3위를 2위로, 『동아일보』의 무기 정간을 『조선중앙일보』의 처분으로 바꾼다.

바로 확인

Q17-1 객관식

1936년 베를린 올림픽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손기정은 1위, 남승룡은 2위를 차지하였다.

② 한국인 선수의 성취와 일본 대표로 출전한 식민지 현실이 함께 나타났다.

③ 일장기 말소 보도 뒤 무기 정간 처분을 받은 신문은 『조선중앙일보』였다.

④ 손기정 사진의 일장기를 지운 신문은 『조선일보』뿐이었다.

답

Q17-2 O/X

『조선중앙일보』는 일장기 말소 사건 뒤 곧바로 다시 발행되어 광복 때까지 이어졌다.

답 O X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

Q17-3 빈칸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손기정은 1위, 남승룡은 ( )위를 하였다.

답

Q18 민족 문화 수호와 대중문화의 확산은 어떻게 함께 볼까?

[일제 강점기 · 종합 비교]

한 줄 답 활동의 분야뿐 아니라 누가, 무엇을 위해, 어떤 조건에서 했는지 함께 보면 성격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말뜻 먼저

▣ 낱말 풀이

- **수호**: 지켜 보호함.
- **일반화**: 한두 사례의 특징을 더 넓은 대상 전체의 특징으로 확대함.

■ 한눈에 보기

문화 활동을 읽는 네 가지 질문

누가?
주체를 확인하기

어떤 목적으로?
목표와 의도를 살피기

어떤 방법으로?
연구·교육·출판·방송 등을 구별하기

어떤 조건에서?
검열·탄압·비용·참여 여건 살피기

활동	핵심 목적·성격
역사 연구	식민 사관 비판, 주체적·학문적 연구
우리말 연구·보급	말과 글의 기반을 지킴
과학 대중화	지식·기술을 생활과 산업에 연결
종교계의 사회 활동	교육·출판·생활 개선·항일 활동
대중문화	여가·공감·민족의식 등 다양한 경험

예: 라디오라는 수단이 같더라도 과학 강연과 전쟁 선전의 목적은 다릅니다.

⚠ **혼동 주의** 활동 분야가 같아도 목적과 대응이 다르다. 문화의 유행을 모두 항일 운동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1 분야의 이름만으로 목적을 결정하지 않는다

같은 라디오라도 과학 강연을 전할 수도 있고 일제의 선전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라디오'라는 물건 이름만으로 항일 활동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주체와 내용,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문화의 변화와 식민지의 조건을 함께 본다

새로운 잡지와 영화, 음반이 나타난 것은 실제 변화입니다. 그러나 검열과 탄압, 문화생활의 격차도 함께 있었습니다. 새 문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식민 지배 전체가 이로웠다는 결론으로 곧바로 이어서는 안 됩니다.

3 문화적 기반을 지킨 의미를 살핀다

역사와 언어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은 민족의 기억과 표현 수단을 이어 가게 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독립운동의 문화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모든 여가와 문화 소비를 독립운동으로 부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이렇게 나온다 주체·목적·방법·통제 조건을 함께 읽으면 분야가 겹쳐도 활동을 판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 낸다 새 문화의 등장만으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모든 문화 활동을 같은 성격으로 묶는다.

바로 확인

Q18-1 객관식

다음 두 사례를 함께 살펴본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과학 강연을 라디오로 방송하여 청취자가 새로운 지식을 접하게 하였다.
> (나) 일제가 라디오로 전쟁 참여를 독려하였다.

※ 당시 매체의 이용을 설명한 학습용 자료이다.

① 같은 매체도 사용하는 주체와 목적에 따라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② 라디오 방송은 모두 과학 대중화 운동이었다.

③ 새 매체가 생기면 권력의 통제는 불가능하다.

④ 두 사례는 모두 일제에 저항한 활동이다.

답 _____

Q18-2 O/X

라디오로 과학 강연을 방송한 사례가 있으므로, 당시 라디오는 일제의 선전과 관계가 없었다.

답 (O) (X)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

Q18-3 빈칸

한국사 연구와 우리말 연구처럼 우리 문화와 전통을 연구하여 민족 문화를 지키려 한 활동을 아울러 ( ) 운동이라고 한다.

답 _____

PART C 회상 문제

RC01 빈칸

『개벽』·『어린이』 등 잡지 발행은 (㉠), 박중빈의 새 생활 운동은 (㉡)와 연결된다.

답 ㉠ _____ ㉡ _____

RC02 짧은 서술

일부 종교인의 신사 참배 거부가 신앙 문제이면서 식민 지배와도 관련되는 까닭을 쓰시오.

답 _____

_____

_____

RC03 O/X

카프는 노동자·농민의 현실과 계급 문제에 관심을 둔 사회주의 계열의 예술 단체였다.

답 O X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

RC04 짧은 서술

손기정의 우승과 일장기 말소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식민지의 현실을 쓰시오.

답 _____

_____

_____

누적 확인

PART A·B·C 전체를 섞어 다시 확인합니다.

F01 객관식

다음 주장의 문제점을 가장 적절하게 지적한 것은?

> “한국사는 오직 다른 나라의 간섭으로만 움직였다.”

※ 식민 사관의 논리를 드러내기 위해 만든 학습용 문장이다.

① 외국과의 교류를 지나치게 적게 다루었다.

② 사건이 일어난 연도를 밝히지 않았다.

③ 한국인의 주체적인 선택과 활동을 무시한다.

④ 한국 사회 내부의 당파 싸움을 다루지 않았다.

답

F02 객관식

다음과 같이 연구한 학자와 그 연구 흐름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토지 소유와 생산 활동, 사람들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폈다.”

※ 학습용 연구 기록이다.

① 백남운 — 사회 경제 사학

② 신채호 — 실증주의 사학

③ 이병도 — 민족주의 사학

④ 박은식 — 사회 경제 사학

답

F03 객관식

다음 활동과 연결되는 인물·흐름으로 옳은 것은?

정약용의 저술을 정리하고 실학을 연구하여 우리 문화의 주체성을 밝히려 하였다.

① 정인보·안재홍 — 과학 대중화 운동

② 이병도·손진태 — 조선학 운동

③ 백남운 — 실증주의 사학

④ 정인보·안재홍 — 조선학 운동

답

F04 객관식

다음 일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ㄱ. 조선어 학회로 개칭
> ㄴ. 조선어 연구회 조직
> ㄷ. 조선어 학회 사건

① ㄱ → ㄴ → ㄷ
② ㄴ → ㄱ → ㄷ
③ ㄷ → ㄱ → ㄴ
④ ㄴ → ㄷ → ㄱ

답

F05 객관식

조선어 학회 시기(1931~1942)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① 1925년 조선 총독부가 조직한 역사 편찬 기구에 참여하였다.
② 사전 편찬을 추진하다가 1942년 탄압을 받았다.
③ 『진단학보』를 발행하였다.
④ 가갸날을 제정하고 1927년 동인지 『한글』을 발행하였다.

답

F06 객관식

다음 행사 안내에서 알 수 있는 운동의 직접적인 목적은?

> “새 기술을 설명하는 강연, 과학 영화를 보는 시간, 공장 설비를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 당시 과학 행사의 방식을 바탕으로 새로 만든 안내이다.

① 한국사 연구에 문헌 고증의 방법을 적용함
② 우리말의 표기 기준을 통일함
③ 민족의 정신인 얼을 탐구함
④ 과학 지식을 널리 알리고 활용 기회를 늘림

답

F07 객관식

활동의 주체와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대종교 — 만주 항일 운동과 북로 군정서의 기반

② 원불교 — 천도교 소년회 조직

③ 천도교 — 박중빈이 창시한 새 생활 운동

④ 진단 학회 —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답

F08 객관식

다음 설명 중 고쳐야 할 것은?

① 나운규의 「아리랑」은 영화의 유행을 보여 준다.

② 극예술 연구회는 신극 운동을 펼쳤다.

③ 카프는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계급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④ 윤심덕의 「사의 찬미」는 음반 문화의 사례이다.

답

F09 객관식

1936년 손기정의 우승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운 신문 보도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① 한국이 독립 국가로 올림픽에 출전했음을 보여 준다.

② 일장기를 지운 신문은 『동아일보』 한 곳뿐이었음을 보여 준다.

③ 두 신문이 모두 동일한 무기 정간 처분을 받았음을 보여 준다.

④ 민족의식의 표현이 식민 권력의 탄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답

F10 짧은 서술

다음 두 판단에서 지나치게 일반화한 부분을 각각 고쳐 쓰시오.

> (가) 라디오와 음반이 유행했으므로 모든 주민이 똑같이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렸다.
> (나)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이 전개되었으므로 당시의 모든 문화 활동은 항일 운동이었다.

답

인물 한눈 카드

이름과 핵심어를 연결하고, 해당 문항에서 활동을 확인합니다.



박은식

1859~1925 그림

국혼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혈사』

Q02



신채호

1880~1936 그림

아와 비아

고구려 유적 답사

낭가 사상

『조선상고사』

Q03



정인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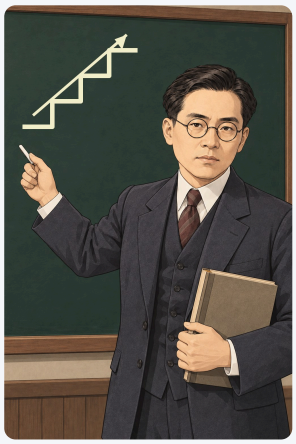
1893~몰년 미상 그림

얼

『여유당전서』

교열·조선학 운동

Q04



백남운

1895~1979 그림

『조선사회경제사』

보편적 발전

정체성론 비판

Q05



주시경

1876~1914 사진

한글 연구

제자들의 계승

조선어 연구회

Q07



안창남

1901~1930 그림

금강호

1922년

고국 방문 비행

Q10

인물 한눈 카드 (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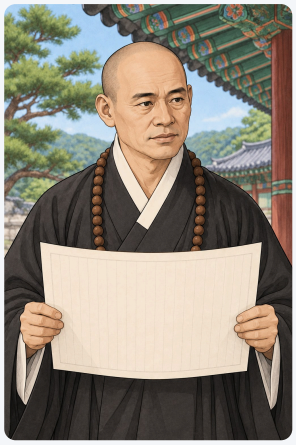
나운규

1902~1937 **사진**

영화 「아리랑」(1926)

영화 제작·연기

Q15



한용운

1879~1944 **그림**

승려·시인

「님의 침묵」

불교 개혁

사찰령 폐지

불교 청년 운동

Q12·Q14



이육사

1904~1944 **사진**

대표 시 「광야」

저항 의식

Q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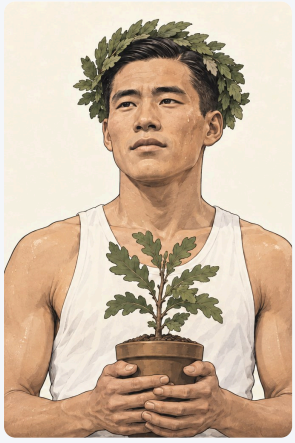
윤동주

1917~1945 **사진**

대표 시 「서시」

성찰

Q14



손기정

1912~2002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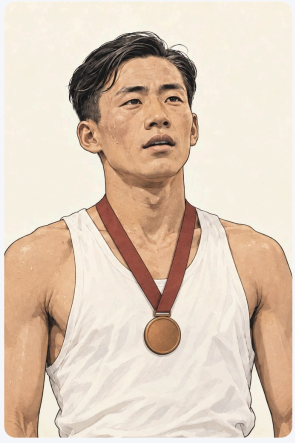
1936년 베를린

마라톤 1위

월계관·화분

일본 대표 출전

Q17



남승룡

1912~2001 **그림**

1936년 베를린

마라톤 3위

동메달

일본 대표 출전

Q17

박은식·신채호·정인보·백남운·안창남·한용운·손기정·남승룡: 웹툰 그림(재현) · 실제 얼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시경: 『한글』(1932) · 구 저작권법상 사진 보호 기간 만료 · Wikimedia Commons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55) · Wikimedia Commons · 구 저작권법상 사진 보호 기간 만료(공표 1955년)

나운규·이육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공공누리 제0유형

정인보 몰년·백남운 출생 연도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물 항목 기준입니다.

찾아보기

누구·어디·무엇?

말	뜻	위치
『과학 조선』	1933년 창간된 대중 과학 잡지.	Q11
『여유당전서』	정약용의 저술을 모은 책.	Q04
가갸날	1926년 조선어 연구회 등이 정해 기념한 날. 뒤에 한글날로 이름이 바뀜.	Q07
개신교	크리스트교의 한 갈래. 학교 설립·계몽 활동에 참여했으며 일부 신자·학교는 신사 참배를 거부함.	Q12
경성 방송국	1927년 서울에서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 방송국.	Q16
과학 지식 보급회	1934년 조직되어 과학 지식의 보급과 과학 대중화 운동을 추진한 단체.	Q11
극예술 연구회	1931년 조직되어 신극 운동을 전개한 단체.	Q15
금강호	안창남이 고국 방문 비행 때 탄 비행기.	Q10
김소월·한용운	1920년대 우리말로 민족의 정서와 삶의 문제를 표현한 대표 시인들.	Q14
김용관	발명학회와 과학 대중화 운동을 이끈 인물.	Q10
나운규·「아리랑」	나운규가 제작·감독·출연에 참여한 1926년 영화. 식민지 현실 속 관객의 공감을 얻음.	Q15
대종교	단군을 중심으로 민족의 뿌리를 강조한 종교. 만주 독립운동과 연결됨.	Q12
문일평	조선심을 강조하고 신문·잡지에 역사 이야기를 써 역사의 대중화에 힘쓴 역사학자.	Q04
박은식	국혼을 강조하며 근대사·독립운동사를 쓴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제2대 대통령을 지냄.	Q02
발명학회	1924년 김용관 등이 조직하여 공업 지식과 발명의 보급을 추구한 단체.	Q10
백남운	『조선사회경제사』를 저술한 사회 경제 사학자.	Q05
베를린	독일의 도시. 1936년 올림픽 개최지.	Q17

말	뜻	위치
손기정·남승룡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각각 1위와 3위를 한 한국인 선수들.	Q17
손진태	역사·민속을 연구한 학자. 진단 학회 조직에 참여함.	Q06
숭실학교	평양의 개신교계 학교. 신사 참배 강요를 거부하여 1938년 폐교됨.	Q13
신사	일본 고유의 신앙인 신도(神道)와 관련된 제사 시설. 일제는 신사 참배를 황국 신민화에 이용함.	Q13
신채호	고대사와 민족의 주체성을 연구한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 의열단의 「조선 혁명 선언」을 작성함. ▶04편	Q03
안재홍	조선학 운동을 이끈 언론인·민족운동가. 신간회 활동에 참여함. ▶05편	Q04
안창남	1922년 고국 방문 비행으로 큰 관심을 모은 한국인 비행사.	Q10
원불교·박중빈	박중빈이 1916년 창시(종교를 처음 시작함)한, 불교에 바탕을 둔 종교. 근검절약과 생활 개선 등을 강조함.	Q12
유성기(축음기)	음반에 기록된 소리를 재생하는 기계.	Q16
윤심덕·「사의 찬미」	윤심덕이 부른 노래와 1926년 음반. 대중가요의 유행을 보여 주는 사례.	Q16
의민단	만주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항일 단체.	Q12
이병도	문헌 고증을 중시한 역사학자. 진단 학회 조직에 참여함.	Q06
이육사·윤동주	일제 강점기에 저항 의식과 현실에 대한 성찰을 시로 표현한 대표 시인들.	Q14
이윤재	조선어 학회 회원으로 우리말 사전 편찬에 참여한 한글 학자. 학회 사건으로 투옥되어 옥중에서 숨짐.	Q09
정약용	조선 후기 사회 제도의 개혁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연구한 실학자.	Q04
정인보	얼을 강조한 역사학자. 『조선사연구』를 쓰고 『여유당전서』의 교열·간행에 참여함.	Q04
조선 신궁	1925년 서울 남산에 세운 신사.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와 연결된 장소.	Q13
조선사 편수회	1925년 조선 총독부가 조직한 역사 편찬 기구.	Q01

말	뜻	위치
조선어 연구회	주시경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1921년 조직한 우리말 연구 단체.	Q07
조선어 학회	1931년 조선어 연구회에서 이름을 바꾸어 우리말 연구·통일·보급을 추진한 단체.	Q07
주시경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고 가르친 학자. 그의 제자들이 이후 한글 운동을 이어 감.	Q07
중광단·북로 군정서	대종교계와 연결된 만주의 항일 조직들. 북로 군정서는 청산리 전투에 참여함. ▶04편	Q12
진단 학회	1934년 이병도·손진태 등이 조직한 학술 단체. 『진단학보』를 발행함.	Q06
천도교	동학을 계승한 종교. 잡지 발행과 청년·소년 운동 등에 참여함.	Q12
천주교	크리스트교의 한 갈래. 고아원·양로원 등 사회 사업을 벌였고, 만주의 신자들은 의민단을 조직함.	Q12
카프(KAPF,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 동맹)	1925년 조직되어 사회주의의 영향 아래 노동자·농민의 현실과 계급 문제를 다룬 예술 단체. 프롤레타리아는 노동자 계급을 뜻함.	Q14
토월회	1923년 조직되어 신극 운동을 펼친 단체.	Q15
한용운	불교계의 개혁·독립운동에 참여한 승려이자 시인. 사찰령 폐지 운동을 펼침.	Q12
한징	조선어 학회 회원으로 우리말 사전 편찬에 참여한 한글 학자. 학회 사건으로 투옥되어 옥중에서 숨짐.	Q09

역사 개념어

말	뜻	위치
과학 대중화 운동	과학 지식과 기술을 널리 알려 많은 사람이 접하고 활용하게 하려는 운동.	Q11
국백	나라의 물질적 형체. 군대·재정·영토 등 나라를 실제로 이루고 지탱하는 기반.	Q02
국학	우리 역사·언어·문학 등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연구하는 학문.	Q04
국혼	나라의 정신. 박은식은 국어·국사·국교(나라의 종교) 등 정신적 요소를 혼으로 보았음.	Q02

말	뜻	위치
낭가 사상	신채호가 화랑도 등에서 찾은 우리 고유의 자주적 정신. 민족정신과 독립사상의 바탕으로 보았음.	Q03
대중문화	많은 사람이 매체를 통해 접하고 즐기는 문화.	Q16
동인지	뜻이나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잡지.	Q14
매체	소식이나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	Q16
무성 영화	배우의 대사 등 소리가 필름에 함께 기록되지 않은 영화.	Q15
민족주의 사학	민족의 주체성과 정신을 강조하여 역사를 연구하는 흐름.	Q02
변사	무성 영화를 상영할 때 화면 곁에서 줄거리와 인물의 대사·감정을 설명하던 사람.	Q15
사료	과거를 연구하는 데 쓰는 기록·유물 등의 자료.	Q01
사찰령	일제가 사찰의 운영과 주지 임명 등을 통제하는 데 이용한 법령. 사찰은 절, 주지는 절을 맡아 관리하는 승려를 뜻함.	Q12
사회 경제 사학	생산 활동과 경제 구조, 계급 관계 등을 중심으로 역사 변화를 설명하는 연구 흐름.	Q05
순수 문학	정치·사회적 주장보다 언어의 아름다움과 개인의 내면 등 문학 자체의 가치를 중시한 문학.	Q14
식민 사관	일제의 한국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의 과거를 해석한 역사관.	Q01
신극	근대적인 연극 형식과 연출을 추구한 연극의 흐름.	Q15
실증주의 사학	사료의 내용과 신뢰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는 연구 흐름.	Q06
실학	조선 후기 현실 문제의 해결과 사회 개혁을 중시한 학문 경향.	Q04
아·비아	아(我)는 자신을 중심에 놓고 보는 주체, 비아(非我)는 그 밖의 상대. 한국사를 설명할 때는 우리 민족과 우리 아닌 상대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음.	Q03
얼·조선심	얼은 정인보, 조선심은 문일평이 강조한 민족의 정신을 가리키는 말.	Q04
유물 사관	사람들이 생산하고 살아가는 물질적 조건과 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 변화를 설명하는 관점.	Q05
일장기 말소 사건	1936년 신문에 실린 손기정 사진에서 유니폼의 일장기를 지워 일제의 탄압을 받은 사건.	Q17

말	뜻	위치
조선 영화령	1940년 일제가 영화의 제작·배급·상영 등을 통제하려고 시행한 법령.	Q15
조선어 학회 사건	1942년 일제가 치안 유지법을 적용하여 조선어 학회 관계자들을 검거하고 활동을 탄압한 사건.	Q09
주체성	다른 존재에 끌려가기만 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성격.	Q03
치안 유지법	일제가 자신들의 국가 체제 등을 위협한다고 본 활동을 탄압하는 데 이용한 법.	Q09
친일 문학	일제의 지배와 침략 전쟁에 협력한 문학.	Q14
황국 신민	황국은 일왕이 다스리는 나라 일본, 신민은 그 백성이라는 뜻.	Q13
황국 신민화	한국인을 일본의 군주인 일왕에게 충성하는 백성으로 만들려 한 동화 정책(한국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없애고 일본인처럼 만들려 한 정책).	Q13

낱말 풀이

말	뜻	위치
강요	상대가 원하지 않아도 억지로 하게 함.	Q13
개칭	이름을 바꿈.	Q07
검거	수사 기관 등이 사람을 붙잡음.	Q09
검열	권력이 발표 전후에 내용을 살펴 제한하는 일.	Q15
견학	실제 현장을 찾아가 보고 배움.	Q11
고대사	역사에서 오래된 고대 시기를 다루는 분야.	Q03
고증	자료를 조사하고 비교하여 사실을 확인함.	Q06
관제	관청이 주도하여 만듦.	Q11
근검절약	부지런히 일하고 아껴 씀.	Q12
맞춤법	말을 글자로 적을 때 따르는 규칙.	Q08
무기 정간	신문·잡지의 발행을 기한을 정하지 않고 멈추게 하는 처분.	Q17
발명	전에 없던 기술이나 물건 등을 새롭게 만들어 냄.	Q10
법칙	현상 사이에서 일정하게 나타나는 관계나 원리.	Q05

말	뜻	위치
보급	널리 퍼뜨려 많은 사람이 쓰거나 알게 함.	Q07
보편적	특정한 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고 널리 적용되는.	Q05
선전	특정 생각이나 행동을 따르도록 널리 알리고 설득함.	Q16
성찰	자신의 생각과 행동, 처지를 깊이 돌아봄.	Q14
수호	지켜 보호함.	Q18
신앙의 자유	믿을 종교를 선택하고 그 믿음에 따라 생활할 자유.	Q13
완간	여러 권으로 이루어진 책을 마지막 권까지 모두 펴냄.	Q09
외래어	다른 언어에서 들어와 우리말에 쓰이는 낱말.	Q08
일반화	한두 사례의 특징을 더 넓은 대상 전체의 특징으로 확대함.	Q18
저술	책이나 글을 씀.	Q02
정당화	어떤 행동이 옳거나 필요한 일인 것처럼 설명함.	Q01
편찬	여러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여 책을 만듦.	Q08
폐간	신문·잡지 발행을 아예 그만둠.	Q17
표준어	공통의 의사소통에 쓰도록 정한 말의 기준.	Q08
허례	실제 뜻보다 겉모양과 형식에만 치우친 예절.	Q12
휴간	신문·잡지 발행을 잠시 쉼.	Q17

빠른 정답

질문	객관식	O/X	빈칸
Q01	②	X	조선사 편수회
Q02	④	O	국혼
Q03	①	O	상고사
Q04	③	O	얼
Q05	②	X	사회경제
Q06	④	X	진단 학회
Q07	①	O	1931
Q08	③	O	사전
Q09	④	O	1942
Q10	①	X	안창남
Q11	③	X	과학 조선
Q12	②	X	원불교
Q13	④	O	황국 신민화
Q14	③	X	동인지
Q15	①	X	나운규
Q16	④	O	윤심덕
Q17	②	X	3
Q18	①	X	국학

PART A 회상

번호	정답·예시
RA01	㉠ 타율성론 / ㉡ 정체성론
RA02	예시: 민족의 정신과 기억을 지켜 독립의 뜻을 이어 가려 했기 때문이다.
RA03	㉠ 박은식 / ㉡ 국백
RA04	예시: 백남운은 사회·경제 구조와 보편적 발전을, 진단 학회는 문헌 고증과 사실 확인을 강조했다.

PART B 회상

번호	정답·예시
RB01	㉠ 1921 / ㉡ 1931
RB02	예시: 맞춤법은 말을 적는 규칙을, 사전은 낱말의 뜻과 쓰임을 정리하는 일이다.
RB03	O
RB04	예시: 많은 사람이 과학을 이해하고 생활과 산업에 활용하게 하려 했다.

PART C 회상

번호	정답·예시
RC01	㉠ 천도교 / ㉡ 원불교
RC02	예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일본의 국가 의례에 복종하라는 일제의 강요에도 맞섰기 때문이다.
RC03	O
RC04	예시: 한국인 선수의 성취에도 일본 대표로 출전해야 했고, 민족의식을 드러낸 신문 보도가 탄압받았다.

누적 확인

번호	정답·예시
F01	③
F02	①
F03	④
F04	②
F05	②
F06	④
F07	①
F08	③
F09	④
F10	예시: (가) 매체가 확산되었어도 비용과 생활 조건에 따른 이용 격차가 있었다. (나) 문화 수호와 저항 활동이 있었지만 여가·상업 활동이나 일제에 협력한 활동도 있었다.

정답 해설과 돌아가기

틀린 문항은 ← 표시된 질문으로 돌아가 다시 읽습니다.

Q01-1 ②

자료는 한국 사회 내부의 발전을 부정하는 정체성론을 비판합니다. ① 타율성론은 외세 의존, ③ 당파성론은 당파 싸움을 민족성으로 일반화한 주장입니다. ④ 민족주의 사학은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식민 사관에 맞선 연구 흐름입니다.

← Q01로 돌아가 다시 읽기

Q01-2 X

외부 영향과 주체적 활동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외부 영향만으로 역사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타율성론의 문제입니다.

← Q01로 돌아가 다시 읽기

Q01-3 조선사 편수회

조선인의 학술 단체인 진단 학회와 구별합니다.

← Q01로 돌아가 다시 읽기

Q02-1 ④

④는 국혼을 강조한 박은식의 생각입니다. ①은 이병도·손진태 등 실증주의 사학자, ②는 신채호, ③은 백남운의 연구 단서입니다.

← Q02로 돌아가 다시 읽기

Q02-2 O

정치적 주권을 잃은 현실과 민족정신을 지키려는 노력을 구별합니다.

← Q02로 돌아가 다시 읽기

Q02-3 국혼

‘얼’은 정인보와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 Q02로 돌아가 다시 읽기

Q03-1 ①

아와 비아의 투쟁은 신채호의 단서입니다. ② 박은식은 국혼, ③ 백남운은 보편적 발전 법칙, ④ 정인보는 얼과 연결됩니다.

← Q03로 돌아가 다시 읽기

Q03-2 O

같은 흐름이라는 사실이 저서까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Q03로 돌아가 다시 읽기

Q03-3 상고사

『조선상고사』라는 책 이름을 완성합니다.

← Q03로 돌아가 다시 읽기

Q04-1 ③

③은 조선학 운동의 실학 연구입니다. ①은 박은식의 저술, ②는 진단 학회의 활동, ④는 백남운의 사회 경제 사학입니다.

← Q04로 돌아가 다시 읽기

Q04-2 O

전통 안에 있던 변화의 가능성을 찾으려 했습니다.

← Q04로 돌아가 다시 읽기

Q04-3 얼

박은식의 국혼과 의미는 연결되지만 대표 인물을 구별합니다.

← Q04로 돌아가 다시 읽기

Q05-1 ②

①은 박은식, ④는 조선어 학회입니다. ③은 백남운이 비판한 식민 사관에 가깝습니다.

← Q05로 돌아가 다시 읽기

Q05-2 X

반대로 한국사에도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 Q05로 돌아가 다시 읽기

Q05-3 사회경제

책 이름은 『조선사회경제사』입니다.

← Q05로 돌아가 다시 읽기

Q06-1 ④

④는 진단 학회입니다. ①은 조선어 연구회, ②는 조선사 편수회, ③은 조선어 학회의 활동입니다.

← Q06로 돌아가 다시 읽기

Q06-2 X

구분은 강조점의 차이입니다. 자료 검토를 한 흐름만의 전유물로 보면 안 됩니다.

← Q06로 돌아가 다시 읽기

Q06-3 진단 학회

1925년 조선 총독부가 조직한 조선사 편수회와 구별합니다.

← Q06로 돌아가 다시 읽기

RA01 ㉠ 타율성론 / ㉡ 정체성론

외세의 영향만 강조하는지, 내부의 발전을 부정하는지 구별합니다.

← Q01로 돌아가 다시 읽기

RA02 예시: 민족의 정신과 기억을 지켜 독립의 뜻을 이어 가려 했기 때문이다.

민족정신·역사 보존과 독립의 바탕이라는 연결이 드러나면 인정합니다. “국혼”만 단독으로 쓰면 이유 설명이 부족합니다.

← Q02로 돌아가 다시 읽기

RA03 ㉠ 박은식 / ㉡ 국백

박은식은 국혼과 국백을 구별하며 민족정신 보존을 나라 회복의 바탕으로 보았습니다. ㉡은 “백”도 인정합니다. 신채호의 대표 단서는 아와 비아의 투쟁·낭가 사상입니다.

← Q02로 돌아가 다시 읽기

RA04 예시: 백남운은 사회·경제 구조와 보편적 발전을, 진단 학회는 문헌 고증과 사실 확인을 강조했다.

백남운 쪽은 생산·계급 관계·사회 경제 중 하나와 발전의 관점, 진단 학회 쪽은 사료 검토·고증·실증 중 하나를 연결하면 인정합니다. 둘 중 한쪽만 쓰면 부분 정답입니다.

← Q05·Q06로 돌아가 다시 읽기

Q07-1 ①

①은 조직의 계승 관계를 바르게 설명합니다. ②는 조선어 학회, ③은 조선어 연구회의 업적입니다. ④는 1927년 연구회 동인지와 1932년 학회 기관지를 혼동했습니다.

← Q07로 돌아가 다시 읽기

Q07-2 O

1926년은 아직 개칭(1931년) 전이므로 조선어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 Q07로 돌아가 다시 읽기

Q07-3 1931

1921년은 연구회 조직, 1926년은 가갸날 제정입니다.

← Q07로 돌아가 다시 읽기

Q08-1 ③

③이 맞습니다. ①은 표준어와 맞춤법의 대상을 바꾸었습니다. ②의 사전 완간은 1957년이며 1933년은 맞춤법 통일안 발표입니다. ④는 연구회의 1926년 가갸날과 학회의 1933년 업적을 혼동했습니다.

← Q08로 돌아가 다시 읽기

Q08-2 O

단체 이름과 연도를 함께 연결합니다.

← Q08로 돌아가 다시 읽기

Q08-3 사전

맞춤법·표준어 정리와 연결되지만 같은 작업은 아닙니다.

← Q08로 돌아가 다시 읽기

Q09-1 ④

④가 1942년 사건의 결과입니다. ①의 개칭은 1931년, ②의 발표는 1933년, ③의 완간은 광복 뒤인 1957년입니다.

← Q09로 돌아가 다시 읽기

Q09-2 O

사전 편찬과 한글 보급이 문화적 민족 운동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 Q09로 돌아가 다시 읽기

Q09-3 1942

1933년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발표입니다.

← Q09로 돌아가 다시 읽기

Q10-1 ①

①은 1922년입니다. ②는 1933년, ③ 과학 지식 보급회 조직은 1934년, ④는 1924년의 일입니다. 비행의 관심이 높아진 시기와 단체·잡지의 출발 연도를 구별합니다.

← Q10로 돌아가 다시 읽기

Q10-2 X

그 활동은 진단 학회와 연결됩니다. 발명학회는 공업 지식·발명의 보급을 추진했습니다.

← Q10로 돌아가 다시 읽기

Q10-3 안창남

과학 대중화 운동을 주도한 김용관과 구별합니다.

← Q10로 돌아가 다시 읽기

Q11-1 ③

①은 조선학 운동, ②는 한글 운동, ④는 일제의 동화 정책입니다. 과학 대중화는 과학을 널리 접하고 활용하게 하는 활동입니다.

← Q11로 돌아가 다시 읽기

Q11-2 X

김용관 등 한국인이 과학 지식을 널리 보급하려고 추진했습니다. 일제는 1938년 김용관을 체포하는 등 이 운동을 탄압했습니다.

← Q11로 돌아가 다시 읽기

Q11-3 과학 조선

조선학 운동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과학 지식 보급을 위한 잡지입니다.

← Q11로 돌아가 다시 읽기

RB01 ㉠ 1921 / ㉡ 1931

조직과 개칭을 구별합니다.

← Q07로 돌아가 다시 읽기

RB02 예시: 맞춤법은 말을 적는 규칙을, 사전은 낱말의 뜻과 쓰임을 정리하는 일이다.

두 작업의 대상이 구별되면 인정합니다. “우리말을 지킨다”만 쓰면 공통 목적일 뿐 차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 Q08로 돌아가 다시 읽기

RB03 O

일제 강점기의 편찬 추진·탄압과 광복 뒤의 출판·완간을 구별합니다.

← Q09로 돌아가 다시 읽기

RB04 예시: 많은 사람이 과학을 이해하고 생활과 산업에 활용하게 하려 했다.

과학 지식의 보급·접근 기회 확대·생활 활용 중 두 요소가 드러나면 인정합니다. 단순히 “독립하려고”만 쓰면 활동의 직접 목적이 부족합니다.

← Q10·Q11로 돌아가 다시 읽기

Q12-1 ②

②가 맞습니다. ①의 『개벽』·소년 운동은 천도교, ③의 중광단은 대종교, ④의 한용운·사찰령 폐지 운동은 불교와 연결됩니다.

← Q12로 돌아가 다시 읽기

Q12-2 X

생활 개선과 무장 항일 운동은 활동 방식이 다릅니다.

← Q12로 돌아가 다시 읽기

Q12-3 원불교

단군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와 구별합니다.

← Q12로 돌아가 다시 읽기

Q13-1 ④

④는 숭실학교 등의 사례입니다. ①은 학교·다른 종교 신자에게도 요구한 사실과 어긋납니다. ②는 1930년대 강화된 황국 신민화 정책을 1910년대에 옮겼습니다. ③은 일부 지도부의 수용·협력을 제외한 일반화입니다.

← Q13로 돌아가 다시 읽기

Q13-2 O

일제는 신사 참배를 통해 일본의 지배와 일왕 중심 질서에 대한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 Q13로 돌아가 다시 읽기

Q13-3 황국 신민화

정책의 세부 내용은 뒤의 전시 동원 편에서 이어 다룹니다.

← Q13로 돌아가 다시 읽기

Q14-1 ③

③이 맞습니다. ①은 동인지·순수 문학과 계급 문학 단체를 혼동했습니다. ②는 조선어 학회, ④는 천도교의 출판 활동과 혼동했습니다.

← Q14로 돌아가 다시 읽기

Q14-2 X

시문학파는 언어의 아름다움과 개인의 내면을 탐구한 순수 문학의 흐름입니다. 노동자·농민의 현실과 계급 문제를 중시한 카프와 구별합니다.

← Q14로 돌아가 다시 읽기

Q14-3 동인지

학술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학술지와 쓰임을 구별합니다.

← Q14로 돌아가 다시 읽기

Q15-1 ①

①이 맞습니다. ②의 토월회와 ④의 극예술 연구회는 연극 단체입니다. ③의 나운규 「아리랑」은 영화이며 음반 「사의 찬미」와도 구별합니다.

← Q15로 돌아가 다시 읽기

Q15-2 X

나운규의 「아리랑」은 1926년 개봉된 영화입니다. 토월회는 신극 운동을 펼친 연극 단체입니다.

← Q15로 돌아가 다시 읽기

Q15-3 나운규

음반 「사의 찬미」의 윤심덕과 구별합니다.

← Q15로 돌아가 다시 읽기

Q16-1 ④

④가 맞습니다. ①은 유성기의 기능, ②는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과 혼동했습니다. ③은 경성 방송국의 1927년 방송 시작을 잘못 설명했습니다.

← Q16로 돌아가 다시 읽기

Q16-2 O

현장 공연과 녹음된 소리의 재생을 구별합니다.

← Q16로 돌아가 다시 읽기

Q16-3 윤심덕

나운규는 영화 「아리랑」과 연결됩니다.

← Q16로 돌아가 다시 읽기

Q17-1 ②

②가 맞습니다. ①의 남승룡은 3위입니다. ③의 무기 정간은 『동아일보』이며 『조선중앙일보』는 휴간 뒤 폐간되었습니다. ④는 일장기를 지운 『동아일보』·『조선중앙일보』와 신문 이름을 혼동했습니다.

← Q17로 돌아가 다시 읽기

Q17-2 X

『조선중앙일보』는 일장기 말소 사건 뒤 휴간하고 다시 발행하지 못한 채 1937년 폐간되었습니다. 『동아일보』의 무기 정간 처분과 구별합니다.

← Q17로 돌아가 다시 읽기

Q17-3 3

두 선수의 성적을 구별합니다.

← Q17로 돌아가 다시 읽기

Q18-1 ①

매체는 같아도 목적이 다릅니다. ②·④는 서로 다른 내용을 하나로 묶고, ③은 실제 선전과 통제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 Q18로 돌아가 다시 읽기

Q18-2 X

라디오는 과학 강연을 전하는 데 쓰이는 한편 일제의 전쟁 선전에도 이용되었습니다. 같은 매체라도 사용하는 주체·내용·목적에 따라 기능이 달라집니다.

← Q18로 돌아가 다시 읽기

Q18-3 국학

도입의 국학 운동과 Q04의 조선학 운동 설명을 연결합니다. 조선학 운동은 국학 운동의 한 갈래입니다.

← Q18로 돌아가 다시 읽기

RC01 ㉠ 천도교 / ㉡ 원불교

각 종교의 대표 활동을 구별합니다.

← Q12로 돌아가 다시 읽기

RC02 예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일본의 국가 의례에 복종하라는 일제의 강요에도 맞섰기 때문이다.

신앙의 자유와 일제의 강요·복종 요구라는 두 요소가 있으면 인정합니다.

← Q13로 돌아가 다시 읽기

RC03 O

계급 문제를 다룬 사회주의 계열 예술 단체가 맞습니다.

← Q14로 돌아가 다시 읽기

RC04 예시: 한국인 선수의 성취에도 일본 대표로 출전해야 했고, 민족의식을 드러낸 신문 보도가 탄압받았다.

일본 대표 출전과 언론 탄압 중 두 요소를 연결하면 인정합니다. 우승 자체를 일장기 말소라고 쓰면 틀립니다.

← Q17로 돌아가 다시 읽기

F01 ③

③은 타율성론이 한국인의 주체적 활동을 지운다는 핵심 문제를 짚었습니다. ①은 오히려 외부 영향만 강조한 주장과 맞지 않습니다. ②는 연도 누락, ④는 당파 싸움의 언급 여부에 주목하여 주장의 핵심 오류를 짚지 못했습니다.

← Q01로 돌아가 다시 읽기

F02 ①

생산·경제 구조의 변화는 백남운의 사회 경제 사학과 연결됩니다. ② 신채호와 ④ 박은식은 민족주의 사학, ③ 이병도는 실증주의 사학에 속하므로 학자와 흐름의 짝이 틀렸습니다.

← Q05로 돌아가 다시 읽기

F03 ④

④는 『여유당전서』 정리와 실학 연구를 인물·흐름에 바르게 연결했습니다. ①은 두 인물을 과학 대중화와 잘못 연결했습니다. ② 이병도·손진태는 진단 학회의 실증주의 사학, ③ 백남운은 사회 경제 사학의 대표입니다.

← Q04로 돌아가 다시 읽기

F04 ②

연구회 조직은 1921년, 학회 개칭은 1931년, 학회 사건은 1942년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이 선후 관계를 뒤집었습니다.

← Q07·Q09로 돌아가 다시 읽기

F05 ②

②가 조선어 학회의 활동입니다. ①은 조선사 편수회, ③은 진단 학회, ④는 이름을 바꾸기 전 조선어 연구회 시기의 활동입니다. 계승 관계가 있어도 업적이 이루어진 시기의 이름을 구별합니다.

← Q08·Q09로 돌아가 다시 읽기

F06 ④

④가 과학 대중화 운동의 직접 목적입니다. ①은 진단 학회의 실증주의 사학, ②는 조선어 학회의 맞춤법 정리, ③은 정인보의 역사·문화 연구와 연결됩니다.

← Q11로 돌아가 다시 읽기

F07 ①

대종교계의 항일 운동은 중광단과 북로 군정서 등 만주 독립운동과 연결됩니다. ②는 천도교, ③은 원불교, ④는 조선어 학회입니다.

← Q12로 돌아가 다시 읽기

F08 ③

카프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예술 단체입니다. 계급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나머지는 인물·단체와 활동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 Q14·Q15·Q16로 돌아가 다시 읽기

F09 ④

④가 사진 보도와 식민지 언론 통제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①은 일본 대표 출전이라는 현실과 어긋납니다. ②는 『조선중앙일보』의 보도를 빠뜨렸습니다. ③은 『동아일보』의 무기 정간과 『조선중앙일보』의 휴간·폐간을 같은 처분으로 잘못 묶었습니다.

← Q17로 돌아가 다시 읽기

F10 **예시: (가) 매체가 확산되었어도 비용과 생활 조건에 따른 이용 격차가 있었다. (나) 문화 수호와 저항 활동이 있었지만 여가·상업 활동이나 일제에 협력한 활동도 있었다.**

> (가)는 유행과 보편적 향유의 차이, (나)는 문화 활동의 다양성을 설명하면 각각 인정합니다. “모든”만 지우고 이유를 쓰지 않으면 부분 정답입니다.

← Q16·Q18로 돌아가 다시 읽기

자료·사실 확인 출처

본문과 문항은 학습용으로 새로 작성했습니다. 박은식·신채호의 ‘사료 읽기’와 사료형 문항은 출처에 실린 원저자의 대목을 직접 현대어로 풀어 썼습니다. 현대 번역서의 문장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백남운의 ‘관점 읽기’는 취지 요약이며 원문 인용이 아닙니다. 한용운 인물 그림에는 「님의 침묵」(1926)의 첫 구절을 현대 표기로 넣었습니다. 그 밖의 시·소설 본문과 노래 가사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 한글 연구·학회 탄압: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조선어학회」 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code=kc_age_40&levelId=kc_o403300
- 조선학 운동: 우리역사넷, 교과서 용어 해설 「조선학 운동」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tg/view.do?ganada=&levelId=tg_004_2690&pageUnit=10&treeId=0106
- 진단 학회: 우리역사넷, 「진단 학회」 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o403520
- 과학 운동: 우리역사넷, 「과학 조선의 건설과 과학 운동」 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km/view.do?levelId=km_004_0030_0040_0060
- 김용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9936
- 안창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5048
- 일장기 말소 사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7311
- 음반과 대중가요: 우리역사넷, 한국문화사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km/view.do?levelId=km_034_0060_0040_0010
- 박은식 사료·국혼/국백: 우리역사넷, 「유심론 또는 민족주의 사학」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levelId=hm_141_0100 ; 「민족주의사학」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nh/view.do?levelId=nh_051_0040_0030_0010
- 『한국통사』의 정신·물질 구별: 우리역사넷 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ts/view.do?levelId=ts_b06
- 신채호 사료·낭가 사상: 우리역사넷, 『조선상고사』 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ts/view.do?levelId=ts_b11 ; 위 「민족주의사학」의 총론 발췌

- 박은식·신채호의 독립운동: 우리역사넷 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n401300 ; 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n402000
- 문일평·조선심: 우리역사넷 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code=kc_age_40&levelId=kc_n400810
-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발표: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해설 https://search.i815.or.kr/sojang/read.do?adminId=3-007447-000
- 과학 지식 보급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4641
- 한용운·사찰령 폐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불교청년회」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2057 (사찰령 폐지 주장 확인에 사용한 출처이며, 항목명을 조선 불교 유신회의 다른 이름으로 쓰지 않음)
- 신사 참배 거부·조선 신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3042 ; 숭실대학교 공식 연혁 https://ssu.ac.kr/학교소개/학교연혁/전체연혁/
- 카프 해산: 우리역사넷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tg/print.do?levelId=tg_004_2370&treeId=0106
- 조선 영화령: 국가법령정보센터, 1940년 시행 법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7401
- 경성 방송국: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2558
- 『조선중앙일보』 폐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신문」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2944
- 외래어 표기 기준 연도 교차 확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큰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8679